

성도의 벗10
1973

영감의 메시지



우리의 힘과 평화와 행복은 주님께
게서 비롯됩니다. 이 시험과 환란의
세상에 처해있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
로해 주고 힘을 갖게 해 주는 확신이
필요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과 회개와 그분의 큰 뜻에 쫓아 봉사
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봉사하고 그
의 자녀를 사랑하고 또 참 기독교인으
로서의 의무를 받아 들인다면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행
복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
하면 복이 있으리라"(마13:17)고 말
했습니다.

재물에서 영원한 기쁨을 찾을 수 없
으며 교만에서 화평을 구할 수는 없습
니다. 그의 앞에 가로 놓은 십자가의
그림자 아래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
락한 이 세상에서 용기와 자비와 사랑
을 몸소 보이신 주님의 사랑의 핏에 안
길때 우리는 안도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우
리의 기쁨을 잃게되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아울러 우리 스스로의 잘못
으로 우리를 타락케 하는 것을 용인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
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은 우리가 따라야 할 구세주시며 구속
주이십니다.

주님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
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출19:5)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저는 알고 있
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맛볼
수 있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
원합니다. 아멘.

매리온 디 행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

대관장단

해롤드 비리
앤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3년 10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 99 호
발행인 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3-5331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 호
대체구좌 : 서울 1409
인쇄인 : 삼화 인쇄 주식 회사 유 건수

고문 위원회

교내 연락 책임자,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번역 및 배부 책임자, 존 이 카
교회 잡지 책임자, 도일 엘 그린
교육 자료 책임자,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악한 말 금하세	2
고작 선생님이잖아	4
기도를 통한 자녀 교육	7
가정복음 교사의 책임	10
이 방 인	14
스톡커 자매님은 십일조를 내고 계십니까?	17
새로운 교회 본부 건물	18
친구가 친구에게	21
종이 인형	23
사무엘	24
조지의 특별한 미소	26
시온 행복 나도 받아	29
시온의 스테이크를 강화함	33
인간... 하나님의 자녀	42
자네는 왜 선교사로 나가려 하나?	45
스테이크 부장단 메시지	46

앤 엘돈 태너
토마스 에스 몬슨
마리안 피 소렌슨
매리온 지 롬니
진난 루티쇼서
엘리자베스 스톡커
빅터 엘 브라운
쥬디 카페너
제리 하스톤
세리 존슨
로이 더블류 독시
해롤드 비리
매리온 지 롬니
해롤드 비리
김 창 선

정가 1권 100원 1년분(송료포함) 국내 80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행

1973년 10월호 성도의 벗 제10권 제10호

대관장단 메시지

“악한 말 금하세”



엔 엘든 태너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함께 이 메시지의 제목에 깊은 뜻을 더해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

“네 이웃을 욕하거나 해치지 말라”(교성 42:27)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 12:36-37)

또 우리가 황금율이라고 부르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

그리고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우리는 모두 우리 이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남의 장점 보다는 잘못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남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헛소문이란 진실이든 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치 잡초처럼 퍼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착한 이웃이 되고자 한다면 진리와 참 사실을 찾거나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출 20:16)는 계명에 위배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를 반성케 합니다. 퇴직한 노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정원 손질을 하는데 그러던 중 길 건너 이웃 집에 한 우유 배달원이 매일 들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배달원은 남편이 출근하면 바로 뒤따라 집에 들어가서는 30분 정도 있다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의 아름다운 여주인은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거의 빠짐 없이 성찬식에 참석하는 자매였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주일 계속되자 그 노인은 이웃에게 이 말을 하면서 그녀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본받을까 염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노인이 이 사실을 감독에게 알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소문은 은와드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감독은 이 일의 전모를 듣고 몹시 마음이 상하여 낙농장 지배인에게 그 배달원의 이름을 묻고 그의 신상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지배인은 배달원에게 아주 기술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즈음 링컨가에 새 고객을 한 사람 얻었군요. 어떻게 그런 고객을 얻게 되었지요?”

“고객이라구요?” 그 배달원은 반문했습니다. “내 말이요. 나는 매일 아침을 딸 집에서 들지요. 대신 배주 금요일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손자들을 본답니다. 손해는 아니지요?”

이 이야기는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의 중요성을 말해 줍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출 23:1)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이나 약점을 가려내어 그 잘못에만 마음을 두면 그 사람의 장점은 못보게 되며 이러한 일로 그 어느 누구도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사실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멜라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이란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나 그 복사품을 본 사람은 워싱턴 장군의 행동하는 듯한 지도력과 힘찬 모습을 경찬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가는 워싱턴이 탄 배위에 있는 군인들의 표정에서 결의와 용기를 기술적으로 잘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배에 무장한 군인 열두명과 장비를 실을 수 없다. 만약 그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세명은 물에 빠졌을 것이다. 군인들이 손에 권총 13개가 들어가 있는 국기는 1776년 벨라웨어 강을 건너던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다. 벨라웨어 강의 배경도 아니다. 그 그림은 독일의 라인강에서 그린 것이다.

이같은 미비점을 알고나면 그 그림이 전하는 참다운 뜻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찰하는 사람은 오직 결점만을 봅니다. 사람은 다 그런가 봅니다. 인격이나 개성이나 외관에 어떤 결점이나 흠이 발견된 사람에게서 장점을 찾지 않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약점을 꼬집는 말로 다른 사람이 나의 약점이나 결점을 들춰내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남의 칭찬할만한 점을 찾아 그 점을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 자기와 아들간에 사랑과 대화가 결핍되어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사랑하며 아들도 또한 착한 아이인데 자기의 신경을 건드린다고 말하며 저의 조언을 청했습니다.

저는 그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들이 알도록 하며 그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더 착한 아들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몇개월 후에 그 아버지에게서 아들 부자간이 매우 화목해져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아이들이란 기대하는 대로 자라게 됩니다. 계속 바라보고만 말하면 그는 그 말을 믿게 되며 더 발전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전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몇 때문에 노력을 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책임을 받는 사람은 차라리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됩니다.

어린이나 아내나 친구나 동료들은 그들이 받는 평판에 따라 좋게 (혹은 나쁘게) 생활하는 것이 보통입

니다.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칭찬은 인격을 향상시키며 비판은 이를 저하시킵니다. 나의 명성이나 인격을 깎아 내리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향상시킬 수는 결코 없습니다. 남의 특징이나 그가 이룬 업적을 높이 칭찬함으로써 칭찬을 받는 그들이나 우리 자신을 향상시킵니다.

이제 따라서 유익한 제언 몇 가지를 드리는 바입니다.

1. 남이 이룩한 업적을 일주일에 최소한 한 가지씩 기록한다.
2. 하루에 최소한 한 사람에게 직접 혹은 전화로 찬사의 말을 전한다. 만약 한 주일의 목표를 세운다면 계속 이와 같이 목표를 세워 생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3. 한달 동안에 남을 비난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참은 횟수를 비밀 기록에 기록해 둔다. 참 마음으로 남에게 찬사를 보낼 때 남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횟수가 점차 줄어드는지 확인해 본다.
4. 남편과 아내는 서로 그리고 자녀에게 그들이 갖추고 있으며 그것을 더 향상해 가기를 원하는 장점에 대해 일주일에 최소한 한번씩 칭찬한다. 자녀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방법을 찾는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기뻐할 것이다.

만약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나 그밖의 다른 직원에게 약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또한 단점을 지적하는 대신 그들을 지지하고 도와주면 그들은 더욱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인품을 더욱 훌륭한 것으로 만들면서 주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헌납할 때에는 내게 헌납하는 것이니라”(교성 42:38)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말 금하세”의 가사에는 우리가 이미 들은 구세주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훌륭한 지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 금하세 천절은 감정을 상하게 하잖네. 우리가 매일 듣는 말엔 고상하지 않은 말 많네”

찬송가 105장

고작 선생님이잖아 개인적인 관찰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확실히 시대는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의학, 교통, 통신 및 우주 여행 등 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망망 대해 안에도 예전과 변함없는 고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년은 예나 지금이나 소년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유치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무심코 아이들이 말다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 어린이가 그들의 아버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보다 더 커”라고 말하자 다른 아이가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보다 더 멋있어”라고 되받았습니다. 나머지 한 아이도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의사야” 그리고는 한 아이를 보며 비웃는 투로 “너희 아빠는 고작 선생님이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이 대화는 중단되었지만 그 말은 내 귀에 계속 여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고작 선생님이잖아, 고작 선생님이잖아, 고작 선생님이잖아. 이 어린이들도 언젠가는 영감을 받은 교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며 그러한 선생님들이 그들의 생애에 남겨 놓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헨리 브룩스 아담스는 “교사란 영원히 영향을 미친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 어디에서 정지한다는 것을 결코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모든 교사에게 즉 첫째로 가정에서의 교사 둘째로 학교에서의 교사 셋째로 교회에서의 교사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선생님은 칠판을 사용지도 않았고 학위를 갖지도 않았지만 그 가르침은 영원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



지입니다. 부모님은 모두 선생님이십니다.

그러한 선생님이 있는 하나님에 정해주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은—즉 여러분의 가정, 혹은 저의 가정에 태어난 아기는—하나님의 집에서 갓 내려 온 인간의 새 꽃망울로 이 지상에서 활짝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교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감이 필요한 경우,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감동의 결정은 우주물 떠들석하게 하는 사건이나 소설, 혹은 역사책에서가 아닌 잠자는 아기를 내려다 보는 부모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란 영광스러운 성경의 말씀은 부모가 이같은 경험을 계속 가짐으로 해서 새롭고 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가정은 천국이라 불리는 안식처가 되며 사랑으로 충만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교성 68:28)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영감 받은 부모에게 “고작 선생님”이란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학교의 선생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필연코 가정이 교육 시간의 일부를 학교에 맡기는 아침이 옵니다. 자녀와 낸시는 매일 아침 집 현관에서 학교의 교실로 가는 행복한 어린이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선생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기대와 소망을 질러 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과 미래를 향한 태도에도 영

향을 미칩니다.

선생님이 미숙하다면 어린이들의 생활에 흠을 남기며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주고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일그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만약 선생님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 어린이들은 자신감을 기르게 되고 능력을 발전시키며 따라서 그들의 미래는 보장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훌륭한 삶으로 인도하는 다리를 놓아주는 대신 신앙을 파괴하는 중에 기쁨을 얻는 교사도 적으나마 있습니다. 인도하는 힘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인도하는 힘은 파멸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대관장단 제 1보좌였던 제이 루우벤 클라크 이세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궁극적인 진리에의 신앙에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그 신앙을 파괴하는 자에게 상처를 입혀 기어다니게 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엄격히 책임을 묻는다. 다른 사람의 해의 영광에 이를 기회를 고의로 무산시키는 자가 떨어질 나락의 깊이를 누가 짚 수 있겠습니까? (불멸과 영생, 제2권 128페이지)

우리가 학교의 수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학생들에게 준비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라구요? 그 방법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해의 영광의 왕국의 영화로움에 이르는 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이론을 구별할 수 있는 측정기를 제시해 주십시오.”

몇년 전에 저는 그러한 지표를

손에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물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합본이었습니다. 그 책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의 조언에 잘 따르는 아름다운 딸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 책의 맨 앞장에는 다음과 같은 아버지의 영감받은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 모린에게.”

“네가 진리와 인간 철학의 잘못을 언제나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너의 지식이 늘어감에 따라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주는 것이니 자주 읽고 네 한 생애 동안 간직해 주기를 아버지는 바란다.”

“네가 사랑하는 아버지 해롤드 비리”

“고작 선생님이잖아”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요일이면 만나는 교회의 선생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옛날의 역사와 현재의 희망과 미래의 약속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교사는 바리새인이 되기는 쉬워도 제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느냐로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롬 2:21-22)

영감으로 충만하고 패기에 찬

교사 바울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비참한 감옥살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군인들의 구두 발자국 소리와 그를 묶은 쇠사슬의 철렁거리는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동정한 한 감옥의 파수꾼이 바울에게 황제 앞에서 취할 행동에 대해 조언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바울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교작 선생님”이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가정이나 학교나 혹은 하나님의 집에서나 자기의 생애로 다른 모든 인간을 그들로 덮어 주시는 선생님인 한분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삶과 죽음, 의무와 운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봉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사셨으며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 사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욕망보다 더 아름답게 그리고 빈곤을 재물보다 더 부유한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서기관들과는 달리 권능으로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황금과 명예에 눈이 어둡고 “출판 아니면 멸망”이라는 철학이 만연된 지금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선생님이야말로 결코 글을 쓰지 않았으며 한번 모래위에 쓰신 글도 바람이 불어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의 율법은 돌위에 새겨지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입니다.

헌신적인 교사가 “와서 내게 배우라”는 친절함의 말씀에 좇을 때 그들은 배우게 되며 또한 그분의 권능을 함께 취하는 자가 됩니다. 저는 어린 소년 시절에 그와 같은 선생님에게서 감화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주일 학교에서 그 여선생님은 세상의 창조와 아담의 타락과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베드로와 도마와 바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에 초대 손님으로 교실에서 맞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으로 그분들을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분의 모범에 따를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빈친구의 어머니의 별세 소식을 전할 때처럼 선생님의 가르침이 힘있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빌리는 그날 이전부터 여러 주일을 결석하였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과 제목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였습니다. 공과 시간이 반쯤 흘렀을 때 선생님은 공과책을 덮으시고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게 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반 파티 기금이 얼마지요?”라고 물었습니다.

“4불 75센트예요” 누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빌리의 가족은 슬픔과 고난에 빠져 있어요. 오늘 오전에 빌리의 가족

을 찾아가 여러분의 기금을 전해 주면 어떻겠어요?”

어린이들이 세불룩을 지나서 빌리의 집에 당도해 빌리와 그의 형과 누나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빌리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읍니다. 우리들의 귀중한 파티 기금이 조그만 선생님의 손에서 슬픔과 가난에 저들린 빌리 아버지의 손으로 전해질 때 가족의 눈에 맺히던 눈물을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돌아 왔읍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했고 더욱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읍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교사가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어린 소년 소녀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하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눅 24:32)란 말씀을 우리가 되풀이하여 말할 수 있었읍니까?

이야기 처음에 말씀드린 아이들의 대화로 화제를 옮기겠습니다. 그 소년이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보다 더 커”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보다 더 멋있어” “우리 아빠는 의사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소년은 “너희 아빠가 우리 아빠보다 더 크고 더 멋있을지 몰라도 우리 아빠는 선생님이야”라고 잘 대답할 수 있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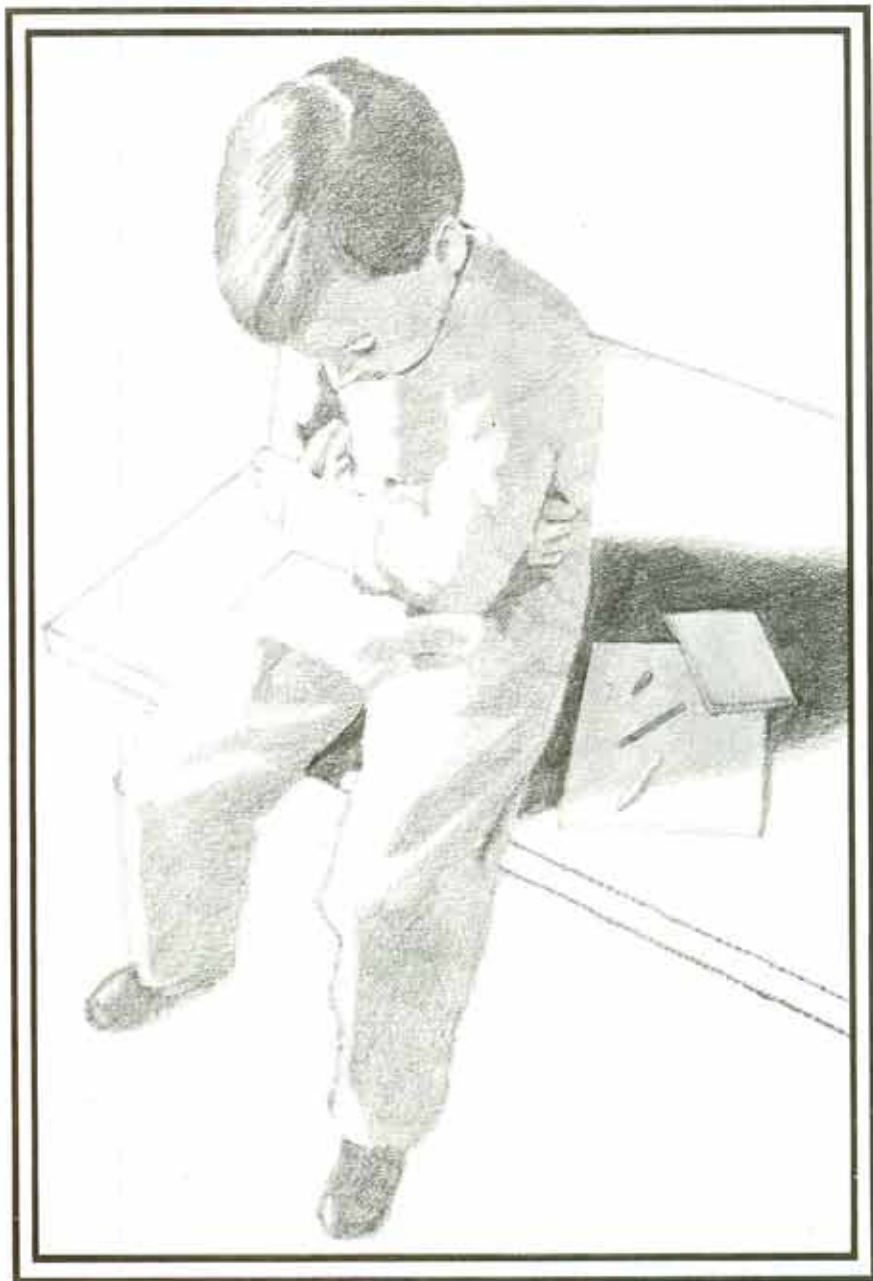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진지하고 가치있는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를 통한 자녀교육

마리안 피 소렌슨 글

소년은 여섯살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꾸만 흐르는 눈물 때문에 당황해 할 줄 알았다. 그는 어쩔 줄을 몰라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도 어머니 곁에 꼭 붙어 있었다. 그의 가족은 얼마 전에 이 세계쪽으로 이사를 왔다. 학교까지는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한 동안을 와야 하는 거리였다.

일곱자녀의 어머니인 소렌슨 자매는 네 바다주 험볼트 스테이크의 상호부조의 회장으로서 봉사하고 있다.



어머니는 등교 첫날에는 그를 데리고 학교까지 왔다. 그러나 소년은 어머니가 곧 돌아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텅 빈 학교 건물로 들어가 어느 한 교실의 문을 닫을 때까지 소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어머니는 소년을 껴안으며 물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 달라고 기도할까?”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이 자기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다. 소년이 그날을 즐겁게 지내고 새 친구와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자 소년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쳤다. 그들은 학교 건물 밖으로 나왔으며 소년은 어머니의 손을 놓았다.

이 조용한 시간은 소년에게 힘과 안도의 마음을 갖도록 해주었지만 또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 어린이는 자기의 마음을 어머니가 훤히 알고 계시며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소년은 또한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을 배운 것이다. 소년은 어린 나이에 너무 벅찬 문제에 봉착했을 때 주님께 의지하며 힘

을 얻은 체험을 쌓은 것이다.

기도는 부모들이 자녀가 배우기를 원하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부모들은 이 훌륭한 교육 도구를 방관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 이유는 미리 생각하거나 외워서 기도하지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부모는 그의 자녀가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마음속으로의 기도와 명상을 요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큰 소리로 기도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가족 기도는 자녀들이 모두 차례로 감사와 가족 전체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가족 수가 많을 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 줄 기회가 적어질 수도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를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은 부모가 정할 수도 있다.

주의할 사항 한 가지는 아이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못을 잘 가려낸다. 그러므로 단순히 입으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영의 속삭

임을 기다린다. 가족이 함께 그들이 늘 기도하던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성령이 그들 가족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이들도 다른 때에는 받아 들이지 않던 충고나 권고도 이 때에는 받아 들인다. 이때가 자녀들에게 부모의 간증을 전할 때이다. 수 많은 축복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특별한 원리나 축복에 대한 간증이라야 한다.

한가족이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의 서거 소식을 듣고 모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버지는 그 위대한 예언자가 복음을 전파하던 때에 살 수 있었던 것을 감사했으며 이어서 전대의 모든 예언자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였고 특히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 그는 자녀들이 새 예언자와 친해지고 새 예언자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 귀여운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이 예언자를 따르는 자들을 따르게 하시고 리 대관장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이면 어떤 것도 결코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아버지는 기도했다.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가족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 그들의 이름을 말해야 한다. 어머니는 메리가 집안 일을 도우

고 가사의 여러 가지 일에 필요한 기술을 익혀 가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특별히 한 아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기도하되 언제나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아버지, 저희들은 쏠이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자라고 있으며 또 저희 아들을 당신이 도와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에게 계속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가 그를 화나게 하지 않고 그에게 사랑을 표시하고 그를 도울 수 있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는 기도에서 자녀에 대하여 바라는 의로운 소망을 말할 수 있다. 성령이 자녀들에게 임하여 경전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신전 결혼을 준비하며 그들에게 탁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알려면 마음을 다한 자기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어머니가 이와 같이 준비한다면 나쁜 행실을 하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인내를 지닐 수 있다. 만약 어머니가 자녀와 둘이서만 곤란에 처한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면 아이는 이 생의 목적을 깨

달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말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그녀의 아이에 대한 사랑을 기도할 때 보여 줄 수 있다.

기도를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사의 표현이다. “아버지, 당신이 저희에게 이 사랑스러운 딸을 맡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딸을 이해하고 이 시간을 통해 딸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제가 때로는 바쁘기도 하지만 설교나 꾸지람을 하지 않으면서 딸의 말을 더 많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딸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잘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딸이 어리지만 지혜를 베푸셔서 저의 잘못을 용서하고 제가 베푸는 사랑을 받아 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도 딸과 마찬가지로 이 생애에서 아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남이 없는 데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나 자녀들이 안 보는데서 기도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자기 부모는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야 한다.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무를

을 꿰고 어려운 문제의 답을 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좋다. 누가 묻는다면 간단히 대답할 수 있다. “나는 공과를 준비할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청합니다.”

부모들은 그들에게 제기된 문제를 너무 조급히 대답해 주려 해서 안된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모르겠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말해 주지” 십대 청소년의 성인에 대한 비판을 보면 어른들은 아무 것도 모를 때에도 다 아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다. 어른들은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서 당장 충고나 상투적인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청소년들은 어른들도 성령의 인도 없이는 길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 보다 큰 책임은 없다. 우리 주위에 있는 문제의 가정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들만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 가족이 가장 한 마음으로 단합이 잘 될 때는 가족이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이다. 부모는 이 특별하고 성스러운 시간에 간증과 사랑과 가르침을 기도를 통해 전할 수 있다. ☉

가정 복음 교사의 책임

매리온 지 롬니 대관장단 제 2보좌

1973년 10월호

가정 복음 교육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가르치고 격려하여 복음대로 생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하신 세 단계의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주님의 교육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서 주님은 복음을 그의 예언자들에게 보이신다. 물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로 온 천사들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에게 전파하므로써 저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을 갖도록 하여 세상 사람들 간에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라.

“이같이 행함으로써 주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인간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게 하시며 성신이...저들 마음에 임하게 하시나니...” (모로 7:31-32)

이같은 절차에 따라 주님은 아담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으며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전해 주셨다.

이와 같이 주님은 복음을 아담 시대부터 예언자 요셉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언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교육 프로그램의 둘째 단계로 주님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도록 했다. 주님은 아담에게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어 너희 자녀에게 이 일을 자유로이 가르치게 하노니...” (모세 6:58)라고 명하셨다.

주님은 이같은 교훈을 모든 시대에 걸쳐 주셨다. 마지막 시대의 초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시온 도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시온의 주민이나 조직된 어떤 스테이크에 사는 주민에게도 하나의 율법이 되리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25-26, 28)

후에 주님은 교회의 지도자 몇몇에게 그들이 명대로 그들의 자녀를 “빛과 진리” 안에서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와 괴로움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 (교성 93:39-50 참조)

교육 프로그램의 셋째 단계로 주님은 교회에 그의 책임을 부여하셨다. 교회는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신학원과 여러 조직과 활동을 조직, 운영하고 있다. 그 안에는 신권 정원회, 신권회, 성찬식, 제보 및 신전 사업, 복지 및 선교사 활동, 교회 학교, 신학 연구원, 보조 조직 그리고 활동 등이 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도록 독려하기 위해 교회는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의 밤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지침이 되는 훌륭한 가정의 밤 교재를 마련하여 왔다.

위에서 언급한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 가운데서 가정 복음 교육은 언급되지 않았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은 다른 것과 엄연히 구별하여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권 소유자에게는 이제 모든 것을 충분히 다 하였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없으며 그런 때는 앞으로도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가정 복음 교육은 특별한 복음 원칙이나 교회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명에 의해 가정 복음 교육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모든 가정과 교회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도움을 준다.

그러면 가정 복음 교육이란 무엇인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가정 복음 교육은 신권 지도자와 감독의 부름을 받아 임무를 부여받고 권능을 가진 두 신권 소유자가 회원의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다. 신권 소유자인 가정 복음 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각 회원의 복지를 돌보고 모든 회원에게 그들의 말은 가정과 교회에서의 책임을 완수할 것을 독려하는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한다.

가정 복음 교사의 특별한 임무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성신이 함께 하는 생활을 해야 하며 가정 복음 교사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신의 인도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둘째 모든 회원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 그들의 가정을 참다운 말일성도의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격려하고 고무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부모가 신전에서 인봉되며 성약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를 부모에게 인봉하고, 미래의 결혼은 신전에서 가지며,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가족 기도를 하며, 모든 회원이 혼자서 기도하며, 다른 복음 표준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르며, 정규적으로 가정의 밤을 갖고 공과를 배우며, 제시에 어긋남이 없이 자녀들은 축복을 받고 침례를 받으며, 합당한 시기에 신권을 받고 그것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신권 소유자는 신권회에 참석하고, 성찬식에도 빠짐 없이 참석하며 또한 모든 회원이 조직과 교회에서 갖는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세상적인 그리고 영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가정 복음 교사는 어떤 강압을 받지 않고 기꺼이 사랑의 정신으로 회원의 가정에 필요한 것과 소망을 위해 봉사한다. 그들은 그들의 감독과 신권 지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순종한다.

가정 복음 교사는 감독과의 접견을 통해 응락한 후에 신권 지도자의 부름을 받고 봉사하게 되는 성스러운 임무를 맡은 형제들이다. 이들은 대관장단의 계획에 따라 총 관리 역원이 지시하고 관장하는 가정 복음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인도된다. 이 봉사 계획과 책임은 주님의 종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서 비롯되었으며, 주님이 그 계획을 계시로 주신 것이다.

가정 복음 교육을 실시하는 책임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모두에게 있으며 아론 신권 교사와 제사에게 있다. “신권에 속한 맹세와 성약”에 따라 부름에 충실하기 위하여 모든 신권 소유자는 공식적으로 가정 복음 교사로서의 부름이 있을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20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 제사, 교사...의 임무는...사도는 장로라...교회 회원을 돌아 보며”(38, 42절)

“제사의 임무는...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며 “이 모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사는 필요에 따라 장로를 돕느니라”(46-47, 52절)

각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기도할 것과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함에 있어 제사가 장로를 도운다는 말은 장로가 “교회 회원을 돌아 보며”라고 한 말과 같은 뜻을 가진다. 이 임무는 교사에게도 해당된다.

“교사의 의무는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는지,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는지,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 욕설하는 일이 없는지 살피며,

교회의 회원이 자주 회합하도록 힘쓰며 모든 회원이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돌보며”(53-55절)

“모든 신권 소유자가 그리스도의 전신에 감주로 무장하여 가정 복음 교육에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같이 의연히 서서 필요한 그의 임무를 이행할 때가 왔읍니다.....”

주님은 초대 교회의 장로에게도 이와 비슷한 의무

(2) 부모는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신권 소유자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을 충분히 다 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없으며 그런 때는 앞으로도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모든 신권 소유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가정복음 교육에 임하며 하나님의 사람같이 의연히 서서 자기에게 맡겨진 회원의 가정을 필요에 따라 자주 방문 함으로써 그의 의무를 이행하고

를 부과하였음이 틀림 없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적고 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베드로 전서 5:1-4)

가정 복음 교육은 성스러운 부름일 뿐만 아니라 벨기세덱 신권 소유자와 제사 및 교사에 관한 한 일반적인 부름이기도 하다.

봉사에의 부름을 받은 신권 소유자가 가정 복음 교육의 임무를 맡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성구는 경전에서 찾을 수가 없다. 대관장단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가정 복음 교육 지도에는 이러한 말이 적혀있다. “의로운 장로나 칠십인이나 대제사는 누구나 가정 복음 교육 프로그램에서 선임 동반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 ...감독은 후임 동반자로 다른 벨기세덱 신권 소유자나 아론신권 소유자를 부를 수 있다...”(가정 복음 가-3페이지)

1914년 4월 대회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가정 복음 교육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최근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여 왔고 그들 중에 몇몇은 교회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자랐으며 신권 정원회에서 지도자의 직책을 맡고 있는 형제들이 그들이 속한 와드의 감독으로부터 성도들을 방문하고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며 교사의 임무를 실행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냉정하게 그런 부름을 받을 시기는 이미 넘었다고 답하고 가정 복음 교사의 직책

을 거절한 것입니다. 찰스 더블류 펜로우즈 형제는 연세가 여든 둘이십니다. 저는 일흔 여섯입니다. 저는 소신권의 임무에서 이미 벗어난 이러한 훌륭한 형제들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과 여러분께 만약 여러분이 우리를 그러한 직책에 부르다면 우리는 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치 못할 만큼 그렇게 늙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권 소유자에게는 이제 모든 것을 충분히 다 하였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없으며 그런 때는 앞으로도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고 또 선한 일을 행하고 시온 건설을 위해 일하고 인류의 유익을 위해 봉사할 능력이 있는 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적든 크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복음 교리 [데저렛 출판사, 1968], 188 페이지)

교회 초창기의 형제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 임무에 임했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는 윌리엄 카훈 장로의 이야기를 인용하겠다. 그는 가정 복음 교육의 의무에 대한 계시가 있고 6개월 반이 지난 1830년 10월 16일에 교회에 입교하였다.

“나는 가정을 방문해야 할 교사로서 부름을 받고 성임되었습니다. 나는 예언자의 가정을 방문하라는 임무를 받기 전까지는 훌륭하게 가정 복음 교사로 일해 왔습니다. 그때 나는 겨우 열일곱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예언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일은 나에게 너무 벅찬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필자도 젊었을 때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의 댁을 방문하는 가정 복음 교사로 일해 본 경험 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드디어 예언자의 집 앞에 까지 가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서서 떨면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셉 형제님, 저는 가정 복음 교사로서 형제님 댁에 왔습니다. 혹 바쁜 시간이 아닌지요?”

“윌리엄 형제님, 어서 들어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쪽 의자에 앉아 계시시오. 곧 가족을 불러 오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요셉 형제님, 저는 가정 복음 교사로 형제님 댁에 왔습니다. 혹 바쁜 시간이 아닌지요...” 어린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곧 들어 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께서 말했습니다. ‘여기에 가족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는 그러고는 자리에 앉아 ‘무슨 이야기든지 물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가 않았으며 몸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요셉 형제님, 형제님은 믿음에 쫓아 살려고 노력합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또 물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도합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에게 복음의 원칙을 가르칩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사 때 음식 축복을 합니까?”

“그는 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제님은 가족들과 화목하고 단란하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의 아내 엠마 자매에게 주의를 돌려 질문했습니다. ‘엠마 자매님, 자매님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칩니까?’”

“이 모든 질문에 그녀는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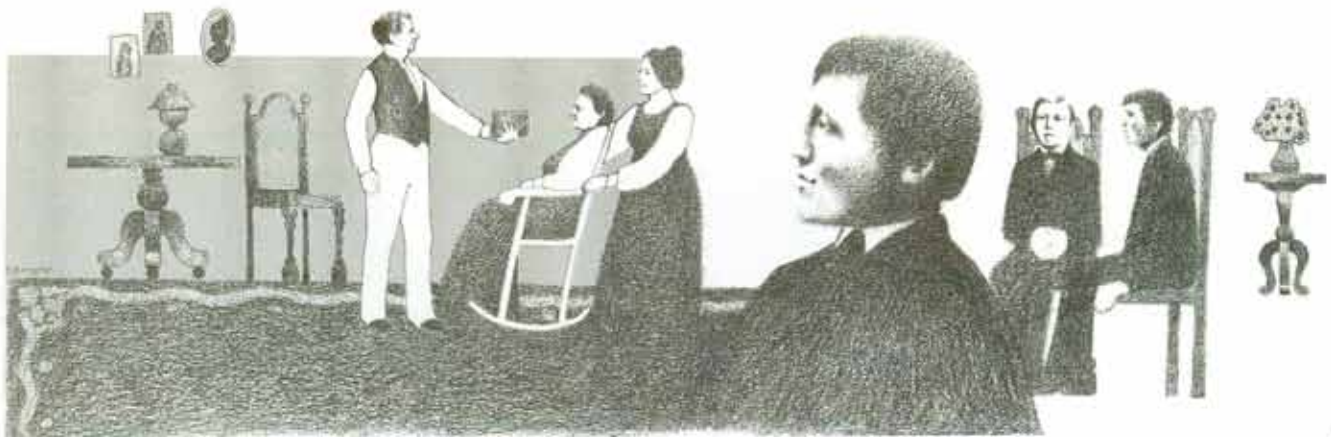
“나는 다시 요셉 형제님을 보고 ‘이제 교사로서의 저의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윌리엄 형제님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형제님이 결혼하고 성실할 때 가정 복음 교사로서 겪는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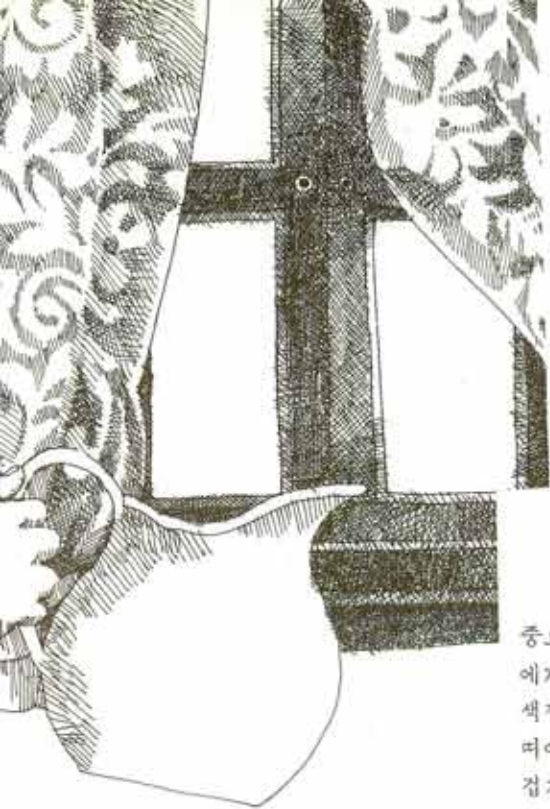
“나는 그와 가족에게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예언자의 집을 떠났습니다.”(청소년 인스트랙터 제27권491-92페이지)

교회의 대관장님들은 언제나 가정 복음 교육을 중시해왔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정 복음 교육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 영감을 주고 훈계하고 인도하는 가장 중요하고 보람된 기회의 하나입니다... 이는 성스러운 봉사이며 부름입니다. 우리는 가정 복음 교사로서 하나님의 영을 가정에 심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일을 사랑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고귀하고 헌신적인 교사는 끝없는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가정 복음 교육에 임하며 하나님의 사람 같이 의연히 서서 그에게 맡겨진 회원의 가정을 필요에 따라 자주 방문함으로써 그의 의무를 이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를 주고 영감을 심어줄 때가 온 것이다. 만약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실한 내 종아 잘했다”는 말을 듣기에 합당한 봉사를 하려 할진대 의무감을 벗어나서 우리 구세주의 진실한 영 안에서 서로의 영원한 상편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과 진정한 염려의 정신으로 봉사해야 한다. ☐







이방인

진닌 루티쇼서

1973년 10월호 **문학**

중요한 곳도 아니었으나 우리 어린이에게는 온갖 아름다운 소리, 향기와 색깔을 지닌 행복한 곳이었다. 라 바띠에에서 보내는 여름은 또한 항상 즐겁기만 하였다. 이는 아주머니가 우리의 비위를 잘 맞추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늘 편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우기 안제리느 아주머니는 시골에만 박혀 있지 않았다. 젊을 때 그녀는 인도나 중국 등과 같은 먼 곳으로 여행한 대담한 성격도 지니고 있었고 해서 자신을 아주 드문 귀짜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녀의 집은 작고 아담하였으며 많은 여행을 통해 구입한 기념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린이의 눈에 비치는 모든 발자취는 새로운 모험과 발견 뿐이었다.

안제리느 아주머니의 친구라고는 전방진 고양이 일곱 마리와 토끼 몇 마리 밖에 없었다. 고양이는 애완용이었고 토끼는 요리에 쓰기 위한 것이었다. 작은 리바시 부인은 아주머니의 바로 이웃인 길 열 단칸 방에서 살고 있었다. 이 방은 부엌으로도 사용하고, 응접실로도 사용하며 거실로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오른쪽 구석은 염소 오두막으로 사용되었다.

어느 해 여름 우리는 자외에 의해 서가 아니라 타외르 라 바띠에에 갔었다. 그 해에 나는 비토소 실사인 제

하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는 열 여섯 살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시골에 대해 너무나 약삭빠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느꼈고, 속으로 다시는 시골에 가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마르세이유가 심한 폭격을 받게 되자 나의 모든 계획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라 바띠에에서의 첫 달은 평온 무사하게 지나갔으나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고 연합군은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독일군은 후퇴하면서 철도와 교량을 파괴하였으므로 마르세이유의 모든 통신망이 완전히 두절되어 버렸다. 아버지가 우리와 연락하여 사탕, 쌀, 기름, 비누 등을 공급해 줄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농부들과 물물 거래를 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때까지 농부들은 우리와 활발하게 거래하였지만 우리의 공급품이 다 떨어지자 그들의 태도는 냉담해졌다. 갑자기 온 마을에는 이상한 질병이 퍼졌다. 식물은 자라지 않고, 암퇘은 알을 까지 않으며 토끼는 새끼를 번식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처럼 말이 없고 의욕을 상실한 표정을 지었다.

몇 주동안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되고 나서 어느 날 우리는 마르팽씨가 오후에 완두콩을 추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몇 파운드를 살 수 있을까 해서 그의 농장으로 달려 갔다.

그녀는 작고 뚱뚱하였으며 얼굴도 예쁘지 않았다. 우리는 어렸고 철이 없었으므로 언제나 그녀를 놀려 주곤 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심하게 놀려준 장본인이었다. 그녀의 걸음 걸이, 발투, 얼굴 표정과 손놀림에 이르기까지 나는 세세하게 익혔다. 나는 거의 완전하게 그녀의 억센 억양과 말의 순서가 틀렸을 때 사용하는 독특한 비웃도 흉내낼 수 있었다. 내가 거의 완전하게 라고 말했는데, 이는 리라시 부인이 물어 어법에 따라 제대로 음을 분절을 하지 못하였고 비록 20년 전에 이태리를 떠났다고는 하나 아직 어느 정도 모국어의 밝은 어조와 억양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라 바띠에-로랑이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마을에 있는 안제리느 아주머니의 집에서 연례 여름휴가를 보낼 때에만 그녀를 보았다. 기차마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을 만큼 이 마을은 작고 별로

다른 농부들처럼 마르뎡씨도 돈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물건을 교환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때를 잘 맞추지 못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농장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낮잠을 자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딱 잘라서 우리에게 완두콩을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리하여 부끄럼을 타고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간청하여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을 주을 수 있도록 승낙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날은 일년 중 가장 무더운 날이었음에 틀림 없다. 도회지 사람만이 이런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무모하게 행동하였다. 우리 주위의 공기는 전지기 어려울 정도로 더웠다. 나는 지금도 곤충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 췌는 듯한 비약별로 땅은 갈라지고 이랑에는 흙이 깊게 파였다. 이처럼 견디기 어려운 폭염의 날씨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오그라 붙은 완두콩을 하나씩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곧 우리의 동작은 느려졌고 마침내 극도로 피곤하여 배를 땅에 붙이고 여기 저기를 기어야만 했다.

내가 어린 여동생과 어머니가 바깥 말라 붙은 땅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느낀 비통한 슬픔은 설명하기 어렵다. 더우기 이 날에 대해서는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 깊이 쓰라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여동생의 얼굴에 나타난 심각한 표정을 그 또래의 어린 소녀에게는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완두콩을 주어 모으면서 완전히 침묵을 지켰다. 한숨도 쉬지 않고 불평도 한마디 없었다. 우리는 병어리처럼 말하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였다.

처음으로 나는 어머니가 얼마나 어려워 주름살이 졌는지 알 수 있었고 어머니가 식사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기 위해서 배고프지 않은 척 애쓴 것을 기억하면 마음이 아팠다. 나는 그토록 우둔하고 이기적이었던 자신을 생각하고는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

흙투성이가 된 턱과 눈부신 햇볕과 흙이 묻은 얼굴에 흘러 내리는 땀방울로 눈에 아픔을 느끼며 밭에 얼드렸을 때 나는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비참하고 굴욕적인 경험을 하도록 만든 마르뎡씨를 생각하고 내 생애에서 단 한번 철저히 한 사람을 경멸했었다.

결국 우리는 온 몸에 먼지를 덮어 쓰고 보양제 되어 집을 향하였는데 죽을 고생을 하며 주워모은 완두콩이 약 5파운드나 되었다. 도중에 우리는 리바시 부인의 집앞을 지나쳐야 했다. 나는 어머님께서 제발 리바시 부인이 낮잠이라도 자고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회상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끝이 너무나 형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문으로 달려 나오며 이렇게 외쳤다. “아유 가련한 사람들! 이게 웬 일이에요?” 이 태도는 지루하고 외롭고 한 달 동안에 처음 듣는 동정어린 것이었다. 그녀의 친절린 목소리는 분함을 느끼고 있는 나에게 깊은 인정을 느끼게 해 주었고 따라서 어머니는 왈락 눈물을 쏟으셨다. 리바시 부인은 부드러운 태도로 어머니를 단칸방으로 안내하였다.


그녀는 몸집에 비해 놀랄 정도로 갸름하게 우리를 위해 음식을 차려 주었는데 염소 치즈며 금방 구운 빵이며 우물에서 길어 온 물을 내어 놓았다. 나는 지금도 것처럼 맛이 있었던 음식은 두번 다시 먹어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도 우시고 리바시 부인도 울었다. 우리가 고생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심이 좋은 리바시 부인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우리에게 주었다. 나는 우리가 부인이 준 식량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때 의아해 하던 그녀의 표정을 기억한다. 우리는 부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 그녀의 선물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알 수 없었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곳을 떠난다거나 이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앉아 있던 방은 잘 정돈되어 있었고 깨끗했다. 나는 이전에는 그녀의 약점만을 찾기에 급급하였던 것이다. 어쩌려져 나는 그녀가 집을 말끔히 청소하고 충실히 일하고 있음을 눈치 채지 못했을까? 리바시 부인과 어머니는 단 하나 뿐인 창가에 앉아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 작은 여동생은 식탁 곁을 떠나 염소를 자세히 들여다 보았고 나는 혼자 생각에 잠기며 감사하였다. 깊이 생각해 볼 일도 많았고 없애 버려야 할 편견도 많았다. 나는 두 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어쩌면 그 시간이 한 생애가 아니었을까?

시골 사람은 반드시 고상하지도 용감하지도 않으며 미덕은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나 백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쓰라린 고통을 겪고 절실히 깨달음으로써 나는 성숙해졌던 것이다. 또한 나는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해심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것이 아님을 마음속에 강하게 느꼈다. 나는 어느 정도 포용력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는 젊은이의 꿈을 약간 잃어 버리기도 하였지만 고통을 더욱 잘 참을 수 있게 되었다.

방안의 신선한 느낌, 식탁 위에 놓은 붉은 사과와 향긋한 향기, 두 여인의 속삭이는 목소리 등은 모두 내게 행복한 느낌을 더해 주었다. 머뭇거리며 하는 염소의 기침 소리도 나에게서는 즐겁기만 하였다.

방안에 어둠이 조용히 깃들었고 열린 창 너머 하늘에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순간을 오래도록 붙잡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참으로 나의 젊은 시절의 어느 늦 여름에 있는 신기한 일을 오래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년 전에는 교회의 여러 분과가 솔트레이크의 여러 건물에 흩어져 있었으며, 어떤 분과는 남쪽으로 40마일 가량 떨어져 있는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에까지 떨어져 있는 것도 있었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 본부를 방문하는 수 많은 사람들은 광범위한 지역을 여행해야 했다. 새로운 교회 본부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16개의 건물에 흩어져 있던 36개의 분과가 1973년 2월까지 한 지붕 밑에 거하게 되었다. 이 이사는 여섯 이삿짐 회사가 맡아 보았다. 모든 분과가 한 자리에 집결됨에 따라 종전의 사무소에서 사람들로 붐비던 것이 해결되었다. 예를 들면 47 East South Temple Street의 행정관내에 있었던 역사과, 선교사과, 및 여러 가지의 관리 감독단 소속 분과가 퇴거함에 따라, 그곳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총관리 직원들의 업무 환경이 편리해졌다.

1평방 미터에 소요된 금액은 6년전 건축한 케비코트 빌딩에 소요된 금액보다 적게 들었다. 통화 팽창과 건축자재 가격 인상을 고려해 볼 때 이 건물의 비용은 놀랄 정도로 적게 든 것이다.

건물 전체에서 소모되는 전기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조종 장치를 설치하여 보다 많은 비용을 저축할 수 있다. 이 조정 장치란 전력의 수요가 지나치게 높을 때, 꼭 필요하지는 않은 발동기를 끄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매달 수천불을 절약하게 된다.

또한, 돌출담은 건축학상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창에 비치는 태양 열을 감소시켜 냉방시설에 지拂되는 비용을 절약시킨다.

이 건물의 수용 능력은 2000명이 넘는다. 그러나 현재는 면적의 85퍼센트만 작업 지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5퍼센트는 미래를 위하여 남겨두고 있다.

건물 밑에는 125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지하 3층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대합실 바로 밑에 있다. 지하 1층에는 700석을 갖추고 있는 간이 식당이 있으며, 이곳을 교회 사무원, 역사, 제보, 참고 도서실의 손님, 가까운 선교부의 선교사들이 이용한다.

건물에는 통행인이 사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15대가 있는데 3대는 주차장에서부터 운행되는 것이고, 6대는 지상1층에서 14층까지 운행되며, 나머지 6대는 분속 305미터의 속도로 14층까지 가서 이 건물의 그 상층에서 운행한다.

이번 여름부터 교회 행정관과 이 건물 사이에 있는 광장에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광장은 솔트레이크 신전의 동쪽 정면을 장관으로 만들며 이 성역을 솔트레이크시의 교회 건물부지의 효지임을 웅변해 주고 있다.

이 정원에 있게 될 아름다운 분수와 새로운 건물의



남쪽 벽에 그려 있는 동, 서반구의 지도가 물위에 비칠 연못은 이 정원에서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룰 것이다. 건물에 그려 있는 지도는 범세계적인 교회의 속성과 지구 상의 모든 국가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려는 말일성도의 원초적인 서약을 상징한다.

교회 사무실의 역사

최초의 교회 사무소는 1848년 다니엘 에이치 웰스가 건축하였다. 가로 5.52미터 세로 3.7미터의 이 건물은 판자와 흙으로 만든 경사진 지붕을 갖고 있었다. “하얀 집” 또는 “저택”은 1848에서 1850년 사이에 세워졌으며 브리감 영의 자택이기도 하였다.

1852년 교회 건축사인 트루만 오 엔펠에 의하여 “대관장 집무실”이 건축되었다. 사우스 템플 스트리트에 비하이브 하우스와 라이온 하우스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무실을 브리감 영 대관장님으로부터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대관장단이 사용했다. 이 시기인 1852년부터 1917년까지 교회의 회원은 7만에서 488,046으로 증가되었다.

1917년에 건축된 교회 행정관은 가로 42.67미터 세로 22.86미터의 넓이이다. 원래 이 건물에는 총관리 직원의 사무실뿐 아니라 계보협회와 몇개의 보조 조직의 사무실도 있었다. 그외의 보조 조직의 사무실은 관리 감독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다. 관리 감독 건물은 현재 새로운 교회 본부 건물이 세워진 곳에 있었는데 1962년 여름에 헐렸다.

교회 회원이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교회 행정이 점차 커감에 따라, 원래 교회 행정관에 위치하고 있던 분과들이 근처의 다른 건물로 위치를 옮겼으며 이러한 흩어진 상태는 새로운 교회 본부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㉔





1. 화이트 하우스 혹은 맨션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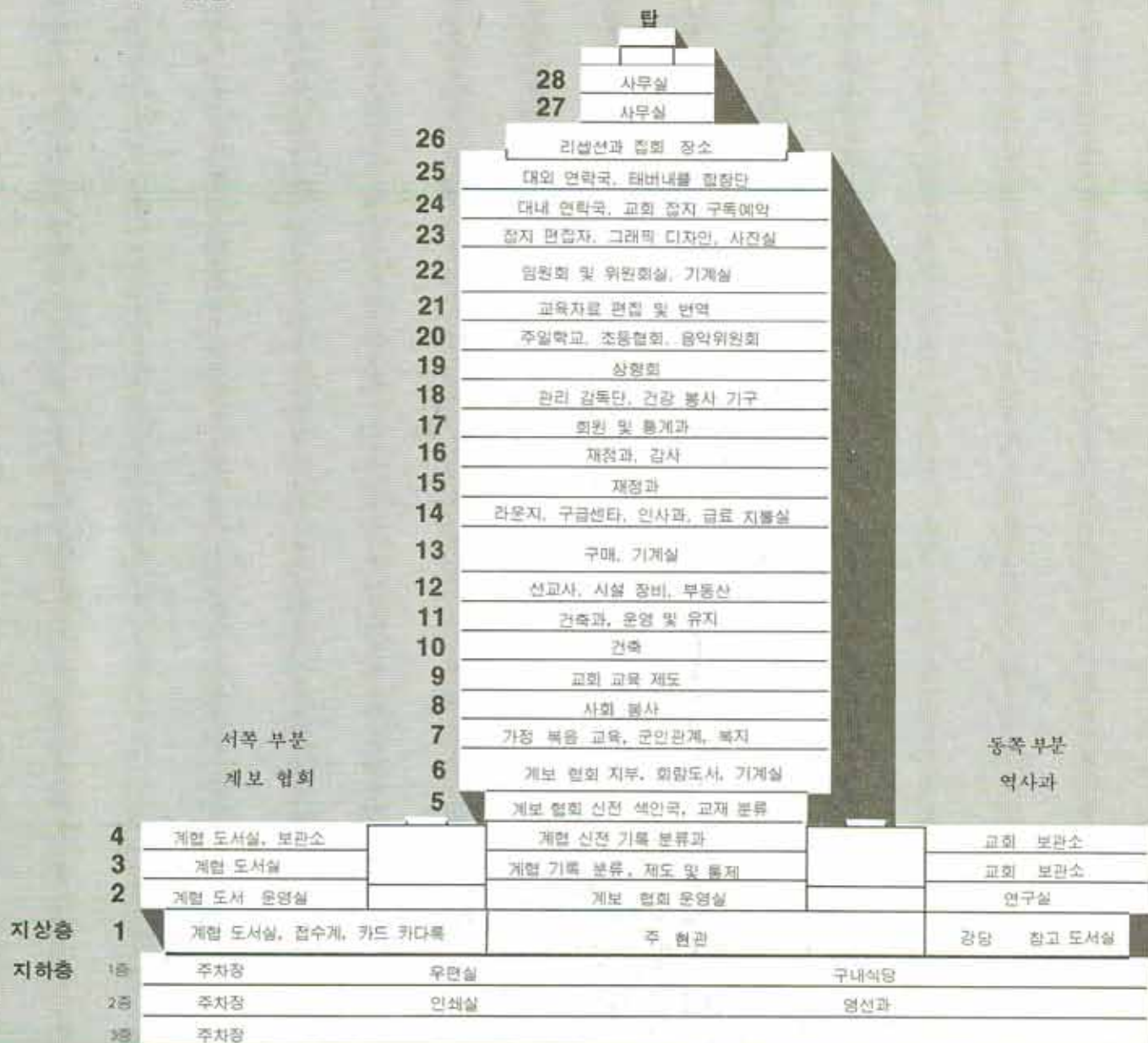


2. 대관장 사무실



3. 교회 행정 사무실

교회 본부 건물





친구가 친구에게

빅터 엘 브라운



생애 1973년 10월호

어머니와 아버지는 앨버트 신전이 건축되기 전에 캐나다에서 결혼을 하였다. 그래서 부모님은 신전결혼을 하지 못하였다. 나는 신전이 완공되어 헌납되기 9년전에 태어났다. 어린시절 나는 주님의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인봉되는 것이 크나큰 소망이었다. 나는 신전에서 인봉 축복이 없이는 죽은 후, 다음 세상에서 내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다.

신전이 헌납되는 즉시 나와 동생을 데리고 신전으로 가지겠다는 부모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나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신전으로 떠나려던 전날에 나는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내가 병이 나을 때 까지 신전 가는 것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그 때 내가 신전가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떠나자고 얼마나 떼를 썼던가 하는 것은 지금도 내 기억에 생생하다. 결국 어머니는 승락하셨고 우리는 신전으로 출발하였다.

그 때 현기증이 나던 일, 동생과 또 다른 여러 아이들과 어린이 방에서 기다리던 일이 생각난다. 그곳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동생과 나를 데리고 인봉실로 갔다. 동생과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그곳 계단에서 무릎 꿇었다. 권능을 소유한 분이 나를 어머니와 아버지께 영원히 인봉할 때 내 가슴속에는 따뜻함과 평화로움이 스며들었다. 이것은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

을 모두 지키면 나의 가족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신전에서의 이 아름다운 일이 있던 다음날 아침 나의 병은 재발하였다. 의사 선생님은 성홍열이라고 진단하였다. 우리는 어저께 신전에서 나와 함께 있었던 아이들이 내게서 병이 나옴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 아이에게도 전염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도 소망하던 신전에서의 인봉식을 뒤로 미루지 않고 가질 수 있었고 그러고도 한 아이도 나 때문에 병에 걸려 고생을 하는 일이 없었던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축복임을 나는 확신한다.

만약 오늘날의 어린이들도 그들의 부모님과 주일학교 및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면 나처럼 세상의 아버지와 어머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 자신과의 관계까지도 잘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중 가장 큰 것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축복이다. 부모에게 인봉된 어린이들은 만약 가족이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의롭게 산다면 영원히 가족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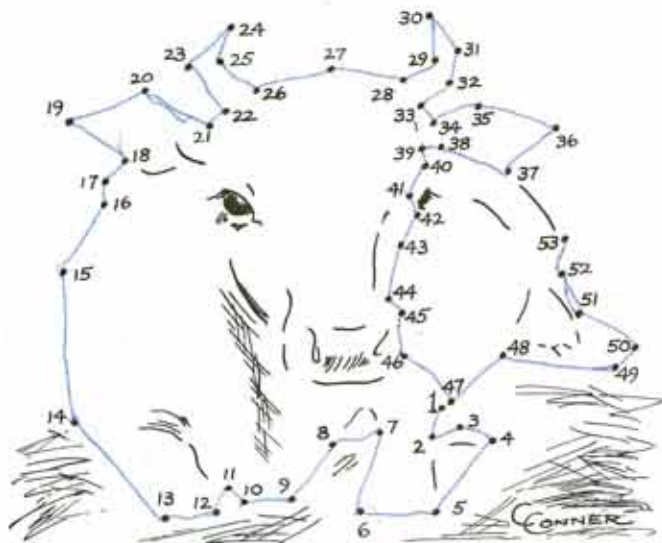
부모님이 아직 신전에 가지지 않은 가정

에 속한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들을 신전에 데리고 가서 가족으로 인봉하게끔 부모님께 영적인 용기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다.

만약 우리 어린이들이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공과를 배운다면 우리는 장차 주님의 집에 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우리 각자가 다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함께 돌아가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기를 바라신다. ㉞

점잇기

캐를 코너



깃털 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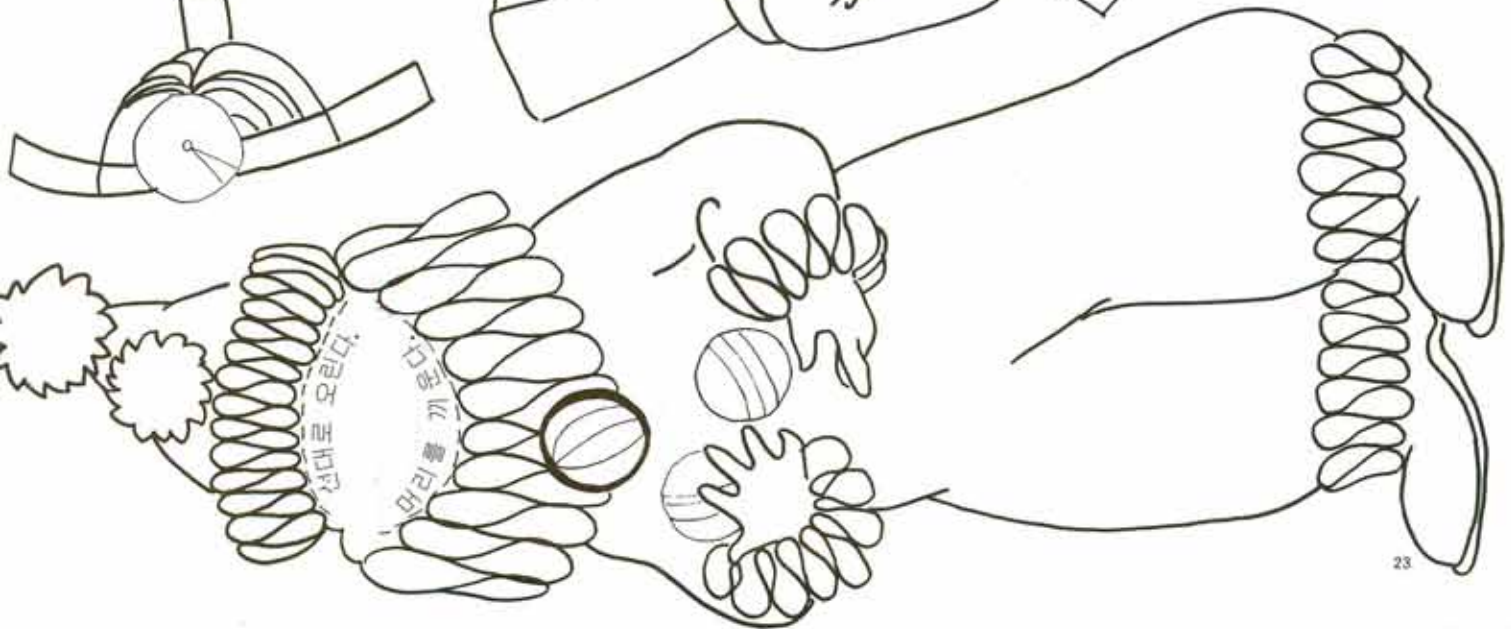
캐를 코너



연필로 점이 있는 칸을 칠하십시오.
무엇이 됩니까?

종이 인형

쥬디 카페너



사무엘

그림 : 제리 하스톤

한나는 오랫동안 아기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주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한나는 그 아기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이 아기가 성전 일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자라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인 엘리와 함께 살도록 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종종 성전에 있는 아들을 찾아 보았으며 어머니 한나는 매년 사무엘에게 옷을 지어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자려고 누웠을 때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소년은 눈을 비비면서 황급히 엘리의 방으로 뛰어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고 엘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방으로 돌아 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또 같은 목소리로 “사무엘아!”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시 졸음이 가득찬 이 소년은 이불을 걸어차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대답은 전과 마찬가지로였습

니다. “내 아들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그의 방으로 다시 돌아간 후에 “사무엘아!”하는 세번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일어나 엘리에게 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는 사무엘을 부른 사람이 주님 입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소년에게 가서 누웠다가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라고 말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그의 방으로 돌아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를 부르는 같은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소년은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밤에 사무엘과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사무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알려준 모든 것을 자세히 고했습니다.

엘리는 고개를 숙이며 “여호와와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고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무엘을 주님의 예언자로 믿었으며 그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3 장



우린 조지하고 놀지 않기로 했어.” 자니는 똑바로 서면서 말했다.

“왜 그러니?” 데이비드가 물었다.

“그건 너도 알잖아!”

자니가 대답했다. “난 몰라, 조지가 우리와 좀 다른 건 몰라도 그와 놀지 않을 이유는 없어.”

데이비드가 변호하고 나섰다.

“다르다고? 조지는 다른 정도가 아냐. 그는 바보란 말이야.”

“조지가 우리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바보는 아니야.” 데이비드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보지 뭐니?” 다른 아이가 끼어 들었다.

열한살 먹은 데이비드는 무력하게 그의 사촌을 쳐다 본다. 조지는 천진스러운 얼굴에 웃음을 담고 데이비드를 쳐다본다. 데이비드는 어디로 달아나 숨어버려 다시는 그 웃음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조지는 덴마크에서 양친을 잃고 데이비드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미국까지 온 것이다. 데이비드는 자니와 다른 친구들을 둘러 보았다. 그들은 이글거리는 표정으로 그를 가운데로 둘러 서서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좋아 난 조지와 집으로 가겠어.” 데이비드는 힘없이 말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자신에게도 또 조지에게도 화가 난 데이비드는 그의 사촌의 팔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안갈래 데이비드야” 조지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말했다. “공치기해”

“조지야, 넌 몰라. 아이들이 널 끼워주지 않는데” 데이비드는 어쩔줄을 몰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지는 미소를 거두고 눈썹을 잔뜩 찌프리며 무슨 말인지 알아 들으려고 하더니 이내 다시 웃으며 “그래 데이비드야”라고 말했다.

“조지야 그들은 너와 놀지 않으려 한단 말이야” 데이비드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지가 못알아



조지의 행 특별한 미소

1973년 10월호

세리 존슨 글

하워드 포스트 그림

듣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 염려 마. 함께 가자!”

데이비드는 조금 걸음을 빨리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았다. 왜 조지가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을까? 왜 난 다른 아이와 같은 사촌이 없을까? 영어를 하는 사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곧 집으로 왔다. 조지는 거실로 가서 놀았으며 데이비드는 자기 방으로 가서 침대 위에 드러누워 생각에 잠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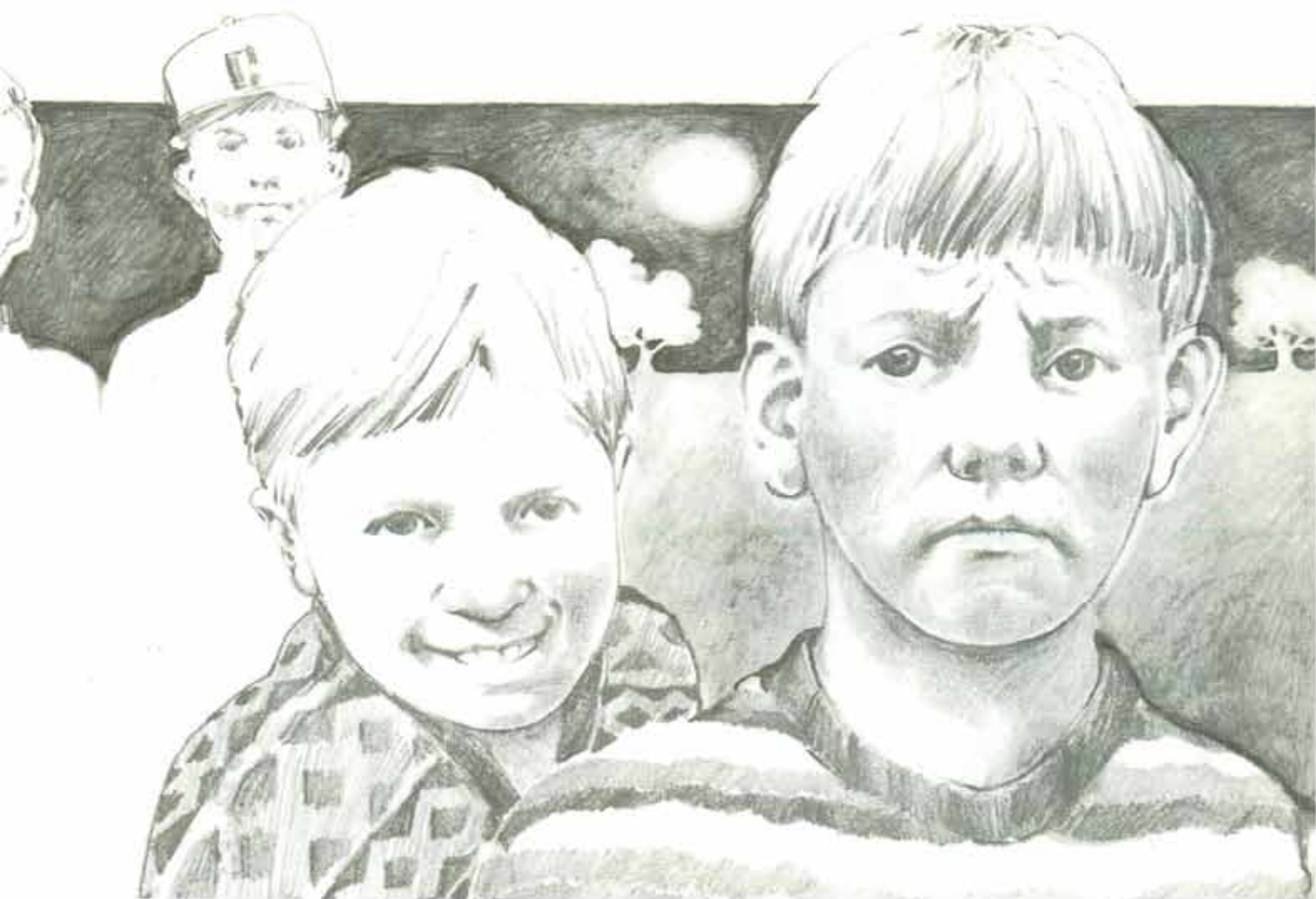
“어디 아프냐?” 어머니가 옷을 치우기 위해 방으로 들어 와서는 물었다.

“아니예요 뭘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도와주련?” 어머니는 침대 가에 앉으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데이비드는 천장을 쳐다보며 말했다. “엄마, 조지는 왜 저렇지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니?”하고



반문했다.

“엄마도 알지만 조지는…착하지요, 조지는 좀 달라요”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다르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그는 너하고 키도 같고 그래서 옷도 함께 입지 않니. 조지도 너처럼 초코렛과 우유 빵을 좋아 하잖아, 조지는 네가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고 네가 슬퍼하는 것은 슬퍼하고…”

“그렇지만 엄마, 그는…” 데이비드는 말을 중단했다. 그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몰랐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어머니가 물었다.

“네, 아이들이 조지는 바보라고 함께 놀지 않겠대요”

“조지는 영리하단다. 그는 우리가 하는 말을 할 줄 모르지만 말을 굉장히 빨리 배우고 있어. 조지는 남다른 장점도 많이 갖고 있지. 네가 그 말을 배울 필요는 없지만 말야”

데이비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조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뭘 가르

쳐 줘도 통 몰라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글세다, 그건 네가 결정할 문제지” 어머니가 타일렀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 섰다. “네가 알아 뉘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 첫째 조지는 널 몹시 좋아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지가 아직 말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는 너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듯이 조지도 사랑하신다.”

갑자기 조지가 방으로 뛰어 들어 왔다. “이리 와 데이브야!” 그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어머니는 방을 나가며 데이비드에게 눈짓을 했다.

“이리 와, 데이브야” 조지는 계속 졸랐다.

“그래, 그래 갈게” 데이비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다.

조지는 데이비드의 팔을 잡고 침대 의자 있는 데로 데려 갔다. 그리고는 책을 한권 꺼더니 읽기 시작했다



다. “베이”라고 그는 한 낱말을 조심스럽게 소리내어 읽어 보며 데이비드에게 의미 있는 행복한 웃음을 띄웠다.

“베이?” 데이비드가 따라 했다.

“베이” 조지는 더 크게 웃었다. 데이비드는 책을 들여다 보았다. “우이! (우리 말로 우리란 뜻)이 낱말은 우리 잼아” 조지는 실망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웃음을 띄고 “비니”라고 발음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다. “아나 우이야”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하며 그의 방으로 돌아왔다.

왜? 왜? 왜? 그는 침대 위에 필묵 들어 누우며 생각에 잠겼다. 조지와 말만 통하면 참 재미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

데이비드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며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조지의 푸른 두 눈이 방안을 조심스럽게 두리번 거렸다.

“데이비” 그는 조용히 불렀다.

데이비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지를 쳐다 보지도 않았다. 조지는 침대 곁으로 걸어와 침대에 걸터 앉았다. 조지는 천천히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데이비드는 무슨 말인지 통 알아 들을 수가 없었다.

데이비드는 조지를 쳐다 보았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하지만 나도 그의 말을 못알아 들어. 데이비드는 처음으로 조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게 생각했다. 내가 그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하니 나를 바보로 생각할지 몰라.

데이비드는 다시 조지를 쳐다 보았다. 그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설명하려고 말을 하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문득 조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다. 그는 친구가 되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그가 데이비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덴마크의 말을 이해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조지의 얼굴에서 그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조지는 이제 말을 끝내고 자리에 앉아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가 미소를 보내자 조지도 미소를 보냈다. 두 소년은 말이 없이도 서로를 이해했다.

“저녁 다 준비됐다.” 어머니가 불렀다.

데이비드는 조지에게 말을 전베고는 함께 재빨리 방에서 나왔다.

데이비드가 낭하에서 어머니와 만나자 걸음을 멈추고 “제가 틀렸어요 엄마, 이해하지 못한 건 조지가 아니고 저였어요. 조지는 영어를 할 수 없지만 우정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는 나에게 가르쳐 줬어요. 조지는 정말 특별한 친구예요”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웃으며 “그럼 너도 특별한 친구야”라고 말했다.

조지는 벌써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다정한 친구에게 보내는 웃음으로 활짝 빛나고 있었다.

“엄마 어쩌면 조지가 나에게 덴마크 말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데이비드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웃었다. ㉠

“시온 행복 나도 받아”

로이 더블류 독시 브리감 영 대학교 종교 대학장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
시인 교리와 성약에서 처
음부터 끝까지 시온에 대하여 말
씀하셨는가? 왜 고대의 예언자
들은 말일에 회복될 시온에 대하
여 예언하였는가? 또한 왜 찬송
가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곡
이 시온을 말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
스도 교회가 생각하는 시온에 대
한 개념,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
원에 대한 관심을 말해 주고 있다.

시온에 관한 메시지는 다음에
소개하는 몇 가지 말일성도 찬송
가 가사에 나타나 있다: “너희 시
온에 모일 때는 근심 걱정 사라지
고”, “밝게 빛난 시온 산에”, “산
에 둘러 쌓인 시온”, “의와 진리
지키기에 시온 청년 지체하랴”,
“시온 행복 나도 받아”¹

왼쪽 란에 인용해 놓은 머릿말
은 요셉 스미스께서 시온성을 건
설하는 경륜의 시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음을 말하고
있다.

성서적인 견지에서 볼 때 시온
이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마음이 청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옛 예루
살렘과 그의 성스러운 산, 예수가
1 엘리과 알 스노우 작사 “제어나라” 찬송가 216장

지은 성스러운 도시, 복남미, 그
리고 미국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이상의 말 중 4가지가 이 말일의 경
륜의 시기에 직접 적용되고 있다.

교리와 성약은 말일에 세워질
시온 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
하고 있다. 주님은 1829년 4월에
올리버 카우드리와 다른 몇몇 사
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
다. “너희가 이미 내게 간구한 대
로 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
니, 내 계명을 지켜 시온의 대업
을 일으켜 세우기를 힘쓰라”(교
성 6:6)

브리감 영 대관장님에게 주어
진 계시로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마지막 계시에서 주님은 시온과
그의 백성에 대하여 약속을 맺으
셨다:

“나의 때가 이르면 시온은 구
속받으리라.”

“나의 백성은 모든 일에 시련
을 겪어야 하나니, 이로써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하여 저들이 영광
 곧 시온의 영광을 받을 준비를 갖
추게 하려는 것이니 징계를 견디
지 못하는 자는 나의 왕국에 합당
하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
36:18, 32)

시온의 대업을 성취하는 것은
말일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시온 건설은 모든 세기를 통하
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기대를
주었습니다.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
들은 이것에 대한 특별한 기쁨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쁨에 찬 기
대를 갖고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기
대에 대하여 그들은 아름다운 노래
와 시를 지었으며, 오늘을 예언하
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날을 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우리
는 말일의 영광을 이루게 하려고 하
나님께서 선택하신 축복받은 사람
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것 같이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모우시고... 모든 나라
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의 하나님의
성도가 모이며, 유대가 하나로 모
이고, 악한 자들이 또한 모여 멸망
하는 때가 찬 경륜의 시기에 우리
에게 남겨진 일은 말일의 영광을 바
라 보고,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
님의 영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
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 이세
교회 정사 4권 609페이지

시온
행복

1973년 10월호

이다. 이 시온성 건설에 참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온 영혼을 시온과 교회 건설에 바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은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온은 기뻐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곧 시온이니라. 그러므로 시온은 기뻐하라. 한편으로는 악인들이 애통하리라.”(교리와 성약 97 : 21)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진실로 회개할 진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간이 교회에서 계속 발전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생활하여야 할 것이다.(교성 38 : 40)

미주리주 잭슨군

주님께서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미주리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교성 125 : 54) 우리도 역시 필요한 모든 것을 바치고 마음을 청결히 하여 교회와 시온 건설에 힘쓰면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교성 98 : 13-15, 101 : 35-38)

현대에 주어진 계시에서 보면

시온성이 미주리주 잭슨군에 세워질 것이다.(교성 57 : 1-3) 1831년 계시에 의하여 성도들이 그곳에 정착했을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는 그곳을 신전 지역으로 헌납하였다.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며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와 열방을 다스리리라는 고대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교성 84 : 1-5, 사 2 : 2-3 미 4 : 1-2)

영적이며 사회 경제적 질서인 성별의 법이 주어져서 가난한 자들이 보호를 받게 되고 부유한 자들이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미주리주에 모였으나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정주하지 못하였다. 주님은 많은 환란이 있고 난연후에야 시온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그들에 말씀하셨다.(교성 58 : 3-5)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의 성약의 백성들이 법한 죄의 결과로 쫓겨났을 당하게 되었다.(교성 101 : 1-9) 성도들은 미주리주 서부로부터 쫓겨났으며 시온의 건립은 성도들이 청결한 자들이 되고 이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될 때까지 중지되었다.(교성 105 : 34)

현대에 주어진 계시와 일치하여

(교성 63 : 27-31) 말일성도 예언자들은 잭슨군이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1856년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백성은 분명히 잭슨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가 될지 나는 관게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들의 집합 장소가 아닙니다”(설교집 3권 278 페이지)

시온 건설에 참여하지 않은 무감각하고 게으른 성도들은 시온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의 교회의 회원들에게 만일 그들이 성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생에서 심판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셨다.(교성 98 : 22-28)

주님 앞에서 의롭게 생활하고 성결하게 생활하고 마음을 청결히 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협동하여 유익하게 되며 시온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교성 100 : 15-17)

마음이 청결함

모든 인간이 거듭나지—세속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거할 수 없다고 엘마는 말했다.(모사

27:25-26)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칩제를 받은 교회 회원은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청결케 한다면 거듭나게 되며 성결하게 된다.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교성 20:29-34)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 (교성 76:41)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대속의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 주셔서 우리로 그와 함께 구원받은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의 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침으로써 형제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이셨다. 우리가 그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2. 교회의 표준 경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 어떻게 생활하여야 하며,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고, 어떻게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지를 안다. (교성 43:8-10, 93:

19, 요셉 스미스서 1:37) 매일 경전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최선의 방법이다.

3. 교회의 회원으로 의롭게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성신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성신의 은사가 우리로 하여금 기만을 피하도록 도와 준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교성 46:7-8) 또 다른 성신의 은사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얻는 것이다. (교성 46:13)

4. 일상 생활에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교성 9:8-9), 우리의 예언자와 그 외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에서도 알 수 있다.

5.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늘 그에 대한 책임을 완수한다. 브리감 영은 그가 늘 복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설교집 12권 217페이지) 우리가 항상 복음 성약을 생각한다면 올바르게 선택하게 된다. 경전을 심사숙고한다거나, 주님의 생활 중에 일어났던 사건을 상고한다거나, 생의 목적을 기억하고

신앙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기억하는 등, 이러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기회가 된다.

6. 교회 정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회의 사업에 활동적으로 참여한다. (교성 38:40) 우리가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계명에 무관심하게 되고 주님의 영의 인도하시는 영향을 잃게 된다. (교성 1:33)

7.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생활화한다.

비대륙에 세워진 시온에서나 또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상 어느 곳의 시온에서나,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거하는 곳이다. (교성 101:20-23) 각 가족은 가정의 지휘 아래 시온 가정을 만들 수 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특히 가정의 밤에 열의를 갖고 참여하면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이 목표를 완수하게 된다: “우리는 시온 건설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교회 정사 3권 390페이지)

8.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도자를 지지한다. 겸손하고 현실적인 성도는 그의 지도자를 지지할 때 비로소 주님의 영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손을 드는 것은 모든 침례받은 회원이 지도자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약속의 표시이다. 참된 성도는 교회에는 계시의 영이 있어 형제와 자매를 부름에 임직한다는 것을 안다. 그는 또한 교회 대관장은 주님의 계시를 받으며 교회의 모든 역원은 그들이 부름을 받은 직책에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도로, 모든 대화로 모든 훈계로 우리의 형제를 격려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교성 108 : 7)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며 형제를 지지하는 예복의 백성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시온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모세 7 : 18, 교성 38 : 27)

시온과 가족

시온 건설에 대한 бри감 영의 말씀은 가족에게도 적용된다: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시온도 건설할 수 있고 바빌론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시온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인간 자신 속에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이곳에 모일 때 그들은 그들 자신 속에 시온을 건설하겠다는 결의와, ‘어

느 곳에 가든지 시온의 정신을 내 몸에 가득 입고 다니겠다. 이것이 악마를 내게서 멀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나의 영이 악마를 이겨야 하니까’라는 마음의 굳은 결심을 지니고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온은 반드시 세워 집니다. (설교집 5권 4페이지)

예언자가 시현으로 본 시온은 지금 이곳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점차 퍼지고 시온의 능력있는 자들이 나오면 주님의 정하신 날에 시온이 세워질 것이다. 그 축복된 날을 위한 준비가 계속되며, 그날에는 복천년을 다스리기 위하여 오시는 구세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선택될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하여 신앙이 깊고 헌신적인 회원을 부를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부름은 오직 예언자가 계시를 받을 때에 이루어진다. (교성 101 : 16-21, 105 : 13)

어떤 사람은 이 생애에서 시온의 완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 시온 건설의 책임을 완수한 성도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자신의 마음 속에 시온의 정신을 지닌 모든 교

회 회원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큰 위안을 얻을 것이다 :

“하늘의 신권이 지상의 신권과 결합하여 위대한 목적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의 공동된 목적으로 결합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할 때 신권은 하나님의 영을 위에서부터 퍼부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축복이 우리 몸 안에 거하며, 우리의 이름은 세세토록 전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이름을 높이 부르고 우리를 축복받은 자라고 부를 것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이 우리가 겪고 참아온 궁핍으로 인하여 즐거움 속에 살게 되고, 우리가 보인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영광과 축복을 가져 온 사업의 기초를 놓기 위하여 우리가 겪은 건널 수 없는 어려움을 그들이 세세토록 전할 것이며, 하나님과 천사들이 모두 기쁘게 여기신 지난 세대가 한 업적을 기억하고, 고대 축복사와 예언자들의 불붙는 영혼을 기억하며, 암흑의 권세를 몰아 내고 지구상에 개혁을 불러 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고 인간 가족의 구원을 가져다 준 우리의 과업을 기억할 것이다.” (교회 정사 4권 610페이지) ㉠



시온의 스테이크를 강화함

143차 연차대회에서 해럴드 비리 대관장님께서 행한 연설

1973년 4월 6일은 경륜의 시기에 회복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깊은 날이다. 요셉 스미스는 같은 날에 받은 계시를 첫머리로 하여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 말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은 이러하니,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지 일천 팔백 삼십년이 되는 해 넷째달 곧 4월의 제육일에 하나님의 제명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에 좇아 정식으로 조직 창립되었느니라”(교리와 성약 20:1) 그 이후로부터 매년 4월 6일을 전후로 하여 교회의 대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후 또 다른 중요한 계시를 받았으며, 이는 오늘날 급증하는 교회 회원들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인용해 드릴 경전의 말씀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시온은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고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고 그 경계가 넓혀져야 하며 그 스테이크는 강하게 되어야 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온은 마땅히 일어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4)

여기에서 말한 시온이란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았던 그 당시에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심한 고초를 겪고 난 후 겨우 조그마한 조직체로 시작하려는 소수의 회원들만이 있었으며 그들은 주님께서 “시온 땅이라고 지정하신 미조리주 객슨군으로 모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들 개척시대의 회원들에게 그들의 지상에서의 운명을 말하여 주듯이 주님께서는 또 다른 계시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온은 기뻐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곧 시온이니라, 그러므로 시온은 기뻐하라 한편으로는 악인들이 애송하

리라”(교리와 성약 97:21)

시온이라는 성스러운 지명에 합당하게 되려면, 시온은 하나님의 어린양을 신랑으로 맞으려고 치장한 신부와 같은 의로운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계시자 요한이 기록한 대로, 교회는 신랑을 맞으려고 치장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백성과의 관계는 신랑을 맞으려고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한 아내로써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법은 좀 전에 인용해 드린 성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며, 내적으로 사랑스러움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인간에게 거룩함과 선천적인 고결함을 풍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의로운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할 시온의 경계가 이제부터 넓혀져야 하며, 시온의 스테이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부지런히 수행함으로써 시온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아직 어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 회원이 모두 하나로 집합되어야 할 때는 초기 성도들의 집합 장소가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불리우리라” 그리고 명하시기를, “일어나 빛을 받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여러 국민의 기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4-5)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회복된 것은 “말일에 여호와의 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사 2:2-3)라는 고대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의 조직된 단위를 스테이크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조직된 단위는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눈에 보이는 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방어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나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 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2)

이 조직은 계시로써 설명된 바와 같이 “폭풍우가 내리치고 분노가 뒤섞임이 없이 그대로 온 땅 위에 쏟아져 내려올 때에 방어진 이 되며 분노를 피하는 대피소”(교성 115:6)가 되는 것입니다.

경륜의 시기의 처음부터 주신 모든 계명의 첫머리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는 아니 될 속명적인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1831년 주님께서는 이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날이 속히 임하는 줄 알게 하려는 자인 연고라,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그 시각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때가 임박하였도다.”(교성 1:35)

그로부터 142년이 지난 오늘날 주님의 날에 주님도 “이 세계의 왕자”이며 “모든 의로움의 원수”라고 말씀하신 사탄은 그의 위력을 가지고 자기의 영토를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경고가 오늘날 성취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릴 만한 권세를 또한 주님은 계시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 “시온의 백성”인 의로운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뱉으셨습니다.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며 아이두미아 곧 세상을 심

관하리 오시리라”(교성 1:36)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살되 세상의 죄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시면서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와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창세 이래 주님께서는 악마의 권세가 주님의 사업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둔 적이 결코 없었으며, 항상 그의 권세를 의로운 자들 가운데 퍼시사 의로운 사업을 멸망에서 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께서 모세에게 전하신 약속을 증거합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 속에 어둠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교성 88:67)

주님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약속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양 떼를 돌보아 주겠고, 장로들을 일으켜 저들에게 보내리라. 보라, 나는 그 시간 안에 나의 일을 서둘리라”(교성 88:72-73)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그의 손을 우리 성도들 안에 펴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경륜의 시기에서나 과거 그 어느 때에서도 오늘날과 같이 교회 회원들 사이에 긴박감이 있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의 경계는 넓혀지고 있으며 스테이크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초창기에 이미 특정한 지역이 성도들의 집합 장소로 지정되었으며 주님께서는 이 집합 장소는 변경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

면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다. 드디어 성도들을 용납할 여지가 없게 되는 날이 이르면, 그 때에 나는 저들에게 지정하여 줄 다른 장소를 가지고 있나니, 저들은 시온의 회장 곧 시온의 힘을 위하여 스테이크라 불리우리라” (교성 101:22)

1972년 8월 멕시코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님은 이에 관한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연설에서 몇 가지를 인용하겠습니다.

“회복과 집합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에 대해서 니파이의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성약을 맺으셨으니’ ‘모든 유대인들이 참된 교회로 회복되며’ ‘저들이 상속의 땅에 모여서 저들의 모든 약속의 땅을 세워 일으킬 때가 오리다’ (나이 9:1-2)

“이스라엘의 집합은 위의 성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들이 참된 교회에 입교하고, 참 하나님과 그의 숨겨진 진리를 알며, 열방과 열국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므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속의 땅으로 모이는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세워 일으킬 이스라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열방과 열국에서 주님과 성약을 맺은 백성들이 모일 것이라는 등의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맥콩키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연설을 맺으시면서, 각국은 자기

나라의 교회를 강화하기 위한 지도자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멕시코 성도들의 집합 장소는 파테말라에, 브라질 성도들의 집합 장소는 브라질에 있으며, 그렇게 하여 온 지상에 확장됩니다. 일본은 일본인의 집합 장소이며, 한국은 한국인의, 호주는 호주인의, 각 국은 각 민족의 집합 장소입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이 최최 일로에 있는데 유독 이 교회는 눈에 띄이리 만큼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종종 받았읍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근본적인 요인이 있으나,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유타 교회” 또는 “미국 교회”가 아닙니다. 전세계의 78개국에 펼쳐있는 우리 회원은 17개 국어로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급속히 성장하는 교회 회원의 확장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한편, 교회의 지도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커다란 목표를 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항상 두 가지의 원칙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첫번째 원칙은 이 지구가 놓여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구원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것

이며,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를 통하여 밝혀졌고,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고 또한 오늘날 우리도 경고하듯이 이것은 변경되지 않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1:8,11-12)

교회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이 되는 대답은 우리는 교회의 근본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앙개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신앙개조 9조)

말일의 경륜의 시기에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많은 교회가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들이 나의 의식을 저버렸고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교성 1:15)

-16)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

“또한 다른 자들에게도 계명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였나니 이 모두는 예언자들이 기록한 바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며...”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전파되며 왕과 통치자 앞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니라.

“...저희의 말로 준 것이니, 이는 저들로 이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교리와 성약 1:17-18, 20, 23-24)

모든 교회를 하나의 우주적인 조직으로 통합한다는 기독교 통합 운동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이 운동은 그들의 기본적인 교리를 버리고 태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였던 원칙에 기초를 두지 않아도 좋은 애매모호한 조직으로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시가 명백하게 알려질 때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통합된 우주적인 교회가 설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법칙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20)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가 가르쳐지고 실행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사명감은 이렇습니다.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

“그러므로 주의 음성은 땅 끝까지 미치리니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들을 수 있느니라.”(교성 1:4, 11)

이러한 지시에 따라 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젊은이들로서 어려서부터 선교사의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준비해 온 사람들입니다.

교회 초창기 손가락으로 셀 정도의 선교사들은 현재는 그 수가 17,000에 달하며, 자비로 2년 이상을 봉사하는 이들은 세계 어느 곳으로 가게 되든지 그들의 부름을 성스럽게 여기고 그 부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는 또 다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적은 예전에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칙이 변경되지 않는 반면에, 오늘날의 세계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방법은 시대의 요구에 응수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응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인 인간의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새로이 개종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는 기초적인, 세속적인 구원의 계획을 가르칩니다. 가정을 강화하고,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정직, 유덕, 고결함, 검약, 근면을 가르치도록 지침을 마련해 줌으로써 주님께서 가정과 결혼 생활의 성역에 미칠지 모르는 무서운 영향을 막아 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각 회원들을 어린 시절에서부터 장년이 되기까지 지켜보며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의 회원 중에는 도중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얼마의 씨가 비옥한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 중에 어떤 것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9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혹자는 미약

한 대로 활동적이고, 혹은 그보다 좀더 활동적이고, 혹은 완전히 교회에 활동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하는 자를 찾으며 그들을 다시 완전히 활동적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의 성장의 주요 원인은 교회의 모든 회원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스러이 여기며 그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해지는 것은 회원이 많아서가 아니고 신앙있는 회원들이 바치는 십일조의 양이 많아져서도 아니며, 교회 건물이나 시설이 훌륭해서도 아니며, 오직 신앙있는 회원들의 마음이 이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요,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임을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나의 훌륭한, 사업 동료가 말했듯이, "교회의 복지 사업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선교 사업이 번창하지 못하고, 회원들은 교회의 여러 기관에 조달할 자금을 기꺼이 기여할만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주립 대학의 학생회장은 우리 교회가 강해지는 비결을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보낸 편지에서 몇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즈음 이 사회에 만연된 급진적인 사상으로, 많은 지성인 단체가 경멸하는 가족 유대의 붕괴가 일고 있습니다. 마치 국가는 성교육, 낙태, 자녀 수를 조정하는 일, 호색 문학, 여성 해방 운동, 남녀 혼성 집단 생활, 결혼 전의

성교, 결혼 후의 간음 등등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회장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로 끝을 맺었는데, 그것은 그의 깊은 영혼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리 대판장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말일성도 학생들이 전념을 다하여 대판장님을 위해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려는 자들을 굳건히 막아 주시는 지도자를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서 자라는 우리 젊은이들이 따를 수 있는 모범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명석한 대학생의 편지를 받아 보았을 때,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전념을 다하여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진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름은 교회의 모든 회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서 세계의 안전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교회 지도자들이 걸고 있는 의로운 길을 따르게 될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행동을 인도하는 주님의 영을 받게 됩

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은 모든 회원은 침례를 받을 때 신권의 능력으로 교회의 회원에게 약속된 성스러운 헨다우먼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신의 은사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앞으로 올 일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요 14:26 참조)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와 교사의 책임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하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유혹하고 교회 지도자를 따르지 못하게 유혹하는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명이 참으로 성스러운 것임을 알고 있으며, 항상 우리의 과업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는 교회의 영향력을 위축하려고 하고 걸점을 찾으려 드는 적이 있을지 모르나, 이 교회는 끝까지 견디어 승리할 것이며, 주님을 대적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무기는 무력하여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비단 교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과만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우리 각 사람과도 매일 교통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간증과 축복을 전세계에 펼쳐 있는 신앙심 깊은 성도들에게 남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먹든지 말든지 네게 맡기노라”



엔 엘든 태너 연설

하 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의 하나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인생의 여행의 초기에 이르면 인간은 진보와 행복에 이르는 오른쪽 길과 침체와 슬픔으로 인도하는 왼쪽 길에 나있는 갈림길에서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결정하는 선택으로 자신의 운명을 형성한다는 영원한 법칙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성공이나 실패, 평안이나 불안, 행복이나 불행은 모두 매일 우리가 결정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경전을 보면 개인에 대한 으뜸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선택의 자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창세전 천국 회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여 그곳에 사람이 살게 하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영의 자녀들이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지구로 가서 살과 피의 육체를 입고 범사에 유혹과 시험을 받으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면전에서 돌아갈 준비를 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모든 인류를 강제로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할 계획을 가지고 나타나 이렇게 하겠으니 자기에게 그의 영예를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계획을 제시하셨고 그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합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계획이 받아들여졌고 살과 피의 육체를 입고 지상에 거할 모든 사람은 천국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였으며 사탄은 모반하여 천군의 3분의 1이나 되는 영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를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탄이 모반하여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미 부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멸하려 하였고, 나의 권능을 자기에게 쓸 것을 구하였으므로 저의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써 던지움을 받게 하였더라.

“이에 저가 사탄이 되었나니, 참으로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버지라. 인간을 미혹케 하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많은 자를 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 (모세서 4:3-4)

이때 사탄은 그의 추종자들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지와 의로운 대업을 멸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하는데 성공하여 그의 흉악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나 이는 네게 주어진 것이니 먹든지 말든지 네게 맡기노라...”(모세서 3:16-17)

사탄이 우리를 멸할 것을 결심한대

반해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그는 그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온 인류가 불사불멸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복음과 고대 및 현대 예언자의 가르침을 통하여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 대한 구원과 승영의 약속에 대해서는 물론 생의 목적과 선악을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인간을 멸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으며 끊임없이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경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저물을 선동하여 저희 영육을 멸망으로 인도하려 하느니라.

“이같이 사탄은 하나님의 사업을 파멸시키려는 생각으로 간교한 계획을 꾸미나... 이같이 사탄은 인간의 영육을 멸망시키려고 이 세상을 여기 저기 돌아다니느니라.”(교리와 성약 10:22-23, 26-27)

사탄의 실제와 그가 장악하고 있는 전세와 영향력은 에덴동산에서의 첫번 유혹 이래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카인으로 하여금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영감을 미쳤는데 이는 큰 고통과 슬픔을 초래했습니다. 물론경에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사탄의 세력에 굴복한 개인이나 집단의 멸망에 관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대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홍수때 백성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사탄을 추종하였기 때문에 이 큰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세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로마제국의 멸망에 관한 기록을 읽습니다. 기록이 너무나 많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 이요 영광이니라.” (모세서 1 : 39)

으므로 그외의 다른 문명이나 도시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한 개인의 멸망을 일일이 언급할 수 없습니다.

최근 “누가 미국의 일을 추락시키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행한 충격적인 연설에서 켄진 토이드 존스씨는 역사의 길에는 죽은 국가와 멸망한 제국의 뼈가 흩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마가 멸망한 것은 그 도시의 성벽이 낮은데 원인이 있지 않고 로마 자체의 수준이 낮은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색과 주연과 한때 자기 수련을 쌓았던 백성이 점차로 연약한 기질을 갖게 된 것은 로마의 멸망을 가져 왔습니다. (미국 신문 편집인 협회에서 행한 연설)

우리가 선을 두고 오히려 악을 택할 때 자유를 잃어 버리며 우리를 멸하려 하고 우리에게서 의로움에 달려 있는 축복을 박탈하려는 자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더 확실한 증거가 이러한 모든 실례 이외에도 또 있습니까? 매일 자신의 선택을 결정할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의 씨앗을 심고 축복의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실례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훌륭하게 성공한 어느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장애에 대해 매우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업가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사교적인 음주는 자신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어 주고 성공하도록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 각테일 파티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또

한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 것도 알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실직하며 아내와 친구마저도 잃고 말았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선택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한때 성취하기 위해 그토록 희망을 품고 열심히 시작한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애굽에 팔려간 요셉,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에서 구출한 모세, 다니엘 등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기이한 예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서 올라 왔을 때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단 6 : 23) 이외에 많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은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것을 택하는 용기를 가졌으므로 자신을 구하고 백성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출해 내었습니다.

자기 수련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노를 짓기보다는 료류하는 것이 훨씬 쉽고 언덕을 오르는 것보다는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사탄은 항상 술, 담배, 환각제, 외설물, 기만, 부정직, 감언이설 등의 형태로 우리의 길에 유혹을 놓아 줌으로써 우리를 아래로 끌어 내리려고 애쓰며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악행을 저지르게 사로잡아 두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 싸고 있고 오늘날 전 세계에 만연된 악에 어떻게 대항하여 싸울 수 있습니까? 사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극렬하

게 인간을 그의 지배하에 끌어 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 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여 우리의 영향력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세력이 되게 함으로써만 사탄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 성공과 행복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영생을 얻기 위해 애쓰는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선한 사람은 지도자로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이웃으로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와 자녀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무리들에 대항하여 싸우는데 모범과 교훈으로써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만연된 것으로서 계약과 인습은 자녀의 정신에 해를 미친다고 하는 사상으로 우리 스스로 미혹당하거나 실족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묵인하는 개방적인 사회를 향상시킨다 하여 이들은 자녀가 나쁜 행실을 하여도 훈육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한 것을

그러나 사탄이 인간을 멸할 것을 스스로 결심 하였으며 끊임없이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잊지않아야 합니다.

가르쳐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68 : 25, 28)

자녀는 혼자서 선악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는 책임을 받아 들이는 자녀의 준비성과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선택할 일과 그 결과를 평가하는 자녀의 능력을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면서 그들을 훈육하여 그들이 의의 일을 행하게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흠투성이가 되어 있는 경우 우리는 자녀가 목욕을 해야 할지 하지 않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병에 걸린 때에 약을 먹어야 할지 먹지 않아야 할지 또는 학교에 가야 할지 가지 않아야 할지 아니면 교회에 가야 할지 가지 않아야 할지 결정하는 것을 지체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모범과 설득과 사랑으로 우리는 자녀가 자신을 위해 최고로 좋은 일을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고한 제이 에드가 후버 국장¹은 말하기를 만약 부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주일학교와 교회에 데려 간다면 그들은 청소년 범죄를 조장하는 무리들을 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의 초기에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라는 훌륭한 개념과 사실을 가르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현세에서 성공과 행복을 성취하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사탄이 실제로 존재하며 사탄은 온갖 수단을 다 이용하여 그들이 나쁜 일을 하게 유혹하고 그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며 자기의 포로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방법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최고의 행복과 승영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덕성과 의의 모범을 보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의 수준을 높은 영적인 표준에서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물적인 본능과 욕망으로 가득 찬 수준에까지 타락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가 부패하며 멸망해 버리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켄진 로이드 존스씨의 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우리가 도덕적인 표준의 타락으로 시달림을 받으며 의로운 분노를 느끼는 감각이 둔감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영화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욱 추잡하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추잡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실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그들로부터 우물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부도덕은 대답한 예술 형태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 왜 우리는 바보처럼 방종이 참으로 사교적인 것이라고 수긍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쇠퇴하는 묵인의 원리를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도달했습니다. 이것과 자유의 원리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옛날 숨기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하던 쾨와 같은 쾨가 있다는 사상을 다시 회복한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기 수련을 유행의 풍조에 묻어 버린 때입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인간을 멸하려는 사탄의 술책이라는 것을 절감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서적이나 텔레비 또는 라디오에다 유흥장에서 외설서적이거나 준화가 있거나 외설 프로그가 있다면, 만약 음주 운전, 고속도로 사고, 가정의 파탄 등을 포함해서 미숙한 청소년으로 하여금 술과 그에 따른 악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제명에 어긋나는 법의 가결로 위협을 받는다면 이와 같은 침해에 대하여 용기있게 말하고 조직하며 우리 자신과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개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의무요 책임입니다. 우리가 도덕과 자녀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의 부도덕과 악에 효율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기의 자유의지를 불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유의지의 개념을 남용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문제는 이기적으로 악랄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급급한 자들이 야기하는 반면 다른 사람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서 여분을 조성하는 미혹된 소수의 무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가족의 결속을 가질 수 있고 국가의

1. 제이 에드가 후버...미국 연방 수사국 국장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유로우며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느니라……”(니파이 이서 2:27)

힘이 되는 우리의 훌륭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변하며 굳건한 태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무리들에 대항하는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쟁, 죽음, 고통, 빈곤, 질병 등 참상을 깊이 생각해 보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같은 소란스러운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 우리로 하여금 피로움을 당하게 하실까 하며 의문을 가질 우리는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대부분의 경우 무죄한 자들이 사악한 자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지라도 오늘날 지상에 존재하는 제반 분쟁과 다름과 가증함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들어 생활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추종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마련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보하려면 법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태초부터 들어 왔습니다. 다시 경전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법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의로운 것이나 죄악이나 성스런 것이나 비참한 것이나 선이나 악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저 스스로 행동하게 하시었음에 사람이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유로우며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

하여 주어졌느니라. 인간은 만민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어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느니라. 이제 악마가 속박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함이라.”(니파이이서 2:11, 16, 27)

인간은 불행하게 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읍니다. 이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니이 2:25)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일에서 도움과 안내를 받고, 사탄의 세력에 대항하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일로 기쁨과 행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일에 지상에 다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여 그의 교회인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행할 수 있는 권능인 신권을 회복해 주시고 예언자도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수많은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음만이 형언할 수 없는 행복과 평화 그리고 복음을 받아 들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참된 길을 제시해 준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매일 우리는 자신의 선택으로 장차 선이나 악을 추수할지, 구원이나 멸망을 거둘지 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영생을 거둘지 아니면 그의 면전에서 버림을 받는 절망을 거둘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말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들이고 계명을 지켜야 할지 지키지 않아야 할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 주님의 대변자요 오늘날 지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도자임을 확실히 알고 그분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받아 들이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를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 개조를 받아 들어 그 신조에 따라 생활하며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순결하고, 인자하고, 유덕하며, 명예롭고 올바르며 좋은 이웃으로써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지 않는지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유익을 위한 모든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른다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에 따라 진리와 의의 길에 인도되어 이웃에게서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얻을 것이며 마침내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훌륭한 축복을 거절하고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먹든지 말든지 네게 맡기노라.”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선택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인간... 하나님의 자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와같은 지식은 영감을 받지 않은 자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내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진리는 우리를 인간은 진실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 들여 그 진리에 따라 생활한다면 병들어 멸망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는 새로 변혁을 가져와 구원받을 것이며 인간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으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은 이 개념을 그들의 신학의 기본 교리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깊이 생각하고 그 속에 함축된 뜻을 충분히 깨달은 사람의 삶은 그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는 그들이 그것은 식물계, 동물계 그리고 사람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 성숙의 단계에 이르면 부모와 같이 되는 자손을 번식하는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와 똑같은 법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역사하고 있다고 추리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목적은 언젠가는 그들의 하늘 부모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추리로서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기를 "인간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입니다."(모세서 1:39)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의 부모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하나님의 삶을 말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며 대화하였습니다. 타락 후 "아담과 그 아내 이브는 주의 이름을 부르매 에덴 동산 동편 길에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모세서 5:4-5) 들었습니다.

그후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그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의 계획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에 복을 돌리며 아들 딸에게 모든 일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에 "사탄이 저들에게 와서 이르되...이 말을 믿지 말라 하니 저들이 믿지 않게 되었으며 도리어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그때로부터 인간은 육체와 육욕과 악마를 쫓는 자"가(모세서 5:12-13)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의 첫번 세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시대에서 노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자에게 거듭하여 그것을 계시하였으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도 계시하셨고 그후 모세에게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심히 높은 산으로 이끌리어 갔을 때에 하신 말씀.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았고 말씀을 주고 받았으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는 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보라, 너는 내 아들이니라..."

"내 아들 모세야, 나는 네게 시킬 일이 한 가지 있느니라. 너는 나의 독생자와 닮았도다. 또 나의 독생자는 지금이나 장차에도 구세주가 될 자라. 이는 저에게 은혜와 친리가 중한 함이라..."

"이제 보라, 내 아들 모세야, 이 한 가지 일을 네게 보이노니, 너는 세상에 있어 내가 네게 이를 보이는도다."(모세서 1:1-4, 6-7)

이 잘못된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세 번이나 모세를 "내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행한 그의 연설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힘 입어 살며 기뻐하며 있느니라...우리가 그의 소생이라"(행17:28)고 하였습니다.

요셉 스미스와 윌리버 카우드리는 "그가 살아 계시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 이니라."(교리와 성약 76:22-24)

우리가 지상의 아버지가 낳은 아들 딸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것은 사실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인간의 영혼이 두 개의 원소로 구성된 존재 곧 살과 뼈로 된 육체에 거하고 있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계시에 의하면 "인간은 영체와 육체로 되어"(교성 88:15) 있습니다. 지상의 아버지가 인간의 육체의 아버

지인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영의 아버지입니다.

영의 속성은 경전에 알기 쉽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에 대한 명확한 묘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마리아에게 태어나기 약 2천년 전 영으로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물문경의 이더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는 인간의 형상과 모습으로 야벳 형제 앞에 서시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이제 내가 보았느냐? 만인이 태초에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느니라.

“보라 내가 지금 보는 바 나의 몸은 영체라. 내가 나의 영체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이제 내가 네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같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이라.”(이더서 3:14-16)

이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883년 5월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나는 장자니라.

“너희도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이는 곧 ...영이라...”(교리와 성약 21, 23)

우리는 아브라함이 천국회의에 모인 많은 영들을 본 시현에 대한 그의 기록을 통하여 전세의 우리 영의 상태에 대해 약간 알고 있습니다. 천국회의에서는 영들이 와서 삶과 피로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어 살 장소로서 이 지구를 창조할 것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지상 생활의 시험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죽어야 하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원한 영체와 죽어야 하는 육체가 분리되거나 그후 이 불은 부활 때 불사불멸의 영혼으로 다시 결합되리라는 계획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만약 그들이 이 지구에 거하는 동안 자기들의 충실함을 증거하면 부활한 존재로서 그들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다시 돌아가 영원한 진보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

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 아브라함에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 주셨더라. ...하나님이 이 영들을 보시니 좋은 지라...그가 가라사대 나는 이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영이 된 이들 가운데서 제셨음이라...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저들 중 하나다. 너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백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들 중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분이 바로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임]이서 계시더니,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내려 가자, 저 곳에 공간이 있음이다.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 하는지를 보자.”

“저들이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질 것이요[이것은 우리를 가리킴; 우리가 첫째 지체를 잘 지켰고 육체를 받음으로써 더하여졌음]... 또 둘째 지체[곧 현세]를 지킨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 지리라.”(아브라함서 3:22-26)

이것은 인간의 매우 훌륭한 상태에 관하여 제시된 진리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알렉산더 포우프는 자기의 본체에 대한 하나님의 제시된 말씀을 부인한 결과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묘사한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포우프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중간 상태에 위치한 재침울하고 지혜로우며 거칠고 위대하며 회의론자의 지식은 많이 가졌으나 스토아 철학자의 자만심은 아주 적은 존재로

그는 행동해야 할지 쉬어야 할지 자신을 신적 존재로 아니면 동물적 존재로 생각해야 할지

정신과 육체 중 어느 것을 중시해

야 할지

회의의 갈림길에서 방황한다.

죽기 위해 태어났을 뿐 생각하나 잘못을 범하고

그의 이성은 마치 무지한 상태에서처럼 응졸하게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생각하며

사상과 욕정의 혼돈으로 모두가 혼란스럽고

혼자서 자학하거나 자각하며

일어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게 창조되었으며,

만물의 영장이면서 모든 것의 희생이 되고

진리에 대한 유일한 실관자이나 끝없이 오류 속을 헤매이며

세상의 영예와 조롱과 수수께끼로...”

“식물처럼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자기의 독특한 자리를 지키며 양분을 섭취하고 번식하며 먹고...”

“인생의 대양에서 제각기 우리는 항해하고 방위판을 설명한다. 그러나 욕정은 큰바람처럼 일고...”

“그때로부터 아본의 뱀처럼

짐승 같은 욕정의 주인은 나머지물 온통 삼켜 버린다.”

“...인간에 관한 수필” 제이 편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학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학설이 인정되고 영향을 미치지만 인간의 영적인 성장을 막고 도덕을 타락시키는 주요한 요인은 계속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는 사실은 분명히 예언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설을 실봉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신적 존재로 아니면 동물적 존재로 생각해야 할지에” 대한 포우프의 회의와 같은 학설은 동물적 존재이라고 하는 사실을 찬성하는 쪽으로 귀착되고 있으며 “자신의 정신이나 육체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시할지에 대한 회의는 육

포우프, 알렉산더, 1968-1744.

체를 중시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적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지 않게 하고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는 우리가 내일이면 죽게 될이라”고 말하는 운명본자의 태도를 채택하게 합니다. 진실로 그는 포우프가 말한 대로 됩니다.

“식물처럼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자기의 독특한 자리를 지키며 양분을 섭취하고 번식하며 썩고...”

“인생의 대양에서 제각기 우리의 항해하고 방위판을 설명한다. 그러나 욕정은 큰 바람처럼 일고...”

“그때로부터 아른의 뱀처럼 짐승 같은 욕정의 주인은 나머지를 운몽 삼켜 버린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곧 발달의 초기에 있는 신이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면 누구나 어린이들이 부르는 다음 노래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 주셨네
그의 뜻 행하면 그와 함께
다시 살겠네.

길을 찾아 가게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나오미 머블류 랜물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와 같은 지식은 영감을 받지 않은 자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논리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세상적인 학문도 이 지식을 찾아 낼 수 없으며 앞으로도 찾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같은 학문의 연구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딤후 3:7) 없을 것

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성스런 계시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아담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 계시를 받아 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라는 진리를 받아 들이고 믿으며 성신의 권세로 이에 대한 간증을 얻은 자의 소망과 열망과 동기는 이를 믿지 아니하는 자의 소망과는 다릅니다. 이는 마치 자라나는 포도나무가 잘라낸 가지와 다른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때에 인간은 “자신을 신적 존재로 아니면 동물적 존재로 생각해야 할지”에 대한 회의론 갖지 않습니다. 그는 “욕정”과 “혼돈”으로 휩싸여 “사상의 혼란”에 빠지지 않으며 “식물처럼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자기의 독특한 자리를 지키며 양분을 섭취하고 번식하며 썩지도 않습니다. 그는 경전의 가르침대로 다른 모든 만물이 자손을 번식하는 것처럼 성숙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늘의 부모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어 “저의 [그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해지게”(모세서 3:26) 되는 천부의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의 목표입니다.

그는 십계명, 산상수훈, 지혜의 말씀 그리고 이외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지시와 계명을 받아 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준수하는 것은 그의 온 생애를 바쳐 얻으려고 하는 그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권유와 목표를 받아 들이려고 애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니파이삼서 12:48)

그는 “...너희 스스로 조심하게 하노니, 곧 영생의 말씀을 명심하기에 부지런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이라.”(교성 84:43-44)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고 올바른 일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는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교성 93:1)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는 용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 19:25-26)

그는 엘마의 소망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내가 천사되어, 내 마음의 원대로 앞에 나아가 주의 나팔로 땅이 흔들릴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천둥 같은 목소리로 회개와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이 땅 위에 다시는 슬픔이 깃들지 않게 할 수 있으면만,”(엘마서 29:1-2)

끝으로 그는 니파이처럼 다음과 같은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7)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말을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도 역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딸이며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지식을 적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다시 돌아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개인적인 간증을 부연해 드립니다. 진실로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자네는 왜 선교사로 나가려 하나?”



어떤 스테이크 대회에서 예비 선교사를 접견하였습니다. 예비 선교사 한명이 방에 들어 오기 전에 스테이크 부장은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들어 올 형제님은 방금 어려운 경험을 겪고 난 청년입니다. 방금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청년인데 포탄 공포증에 걸렸지요. 그러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고 정말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선교사로 나가려 하나? 그 무서운 경험을 겪고 나서도 정말 가기를 원하나?”

그 청년은 잠시 생각에 잠겨 앉아 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관장님,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한번도 집을 떠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군에 입대하니깐 눈을 뜨면 들리는 소리란 추잡하고 불경스런 소리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점점 순

결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죠. 그래서 그와 같은 무서운 습관에 빠지지 않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훈련은 참 험했습니다. 저는 훈련을 마칠 수 있는 신체적인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전선은 대포 소리와 총 소리로 가득했고 때때로 저희들이 방공호에 얼드릴 때면 손가락 하나만 올려도 총에 맞아 죽을 듯이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저는 그곳에 누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적을 순시하고 공격할 장소를 알리는 전파를 보내어 아군을 강화하는 임무

를 띤 척후병으로 파송되었습니다. 때때로 적군이 저를 포위하고 도망할 틈이 전혀 없게 되어 목숨의 위험을 절실히 느끼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달라고 간구했으며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위험한 경우마다 하나님은 저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청년은 계속했습니다. “대관장님,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기도를 드린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는 목적은 제가 주일학교에서, 신학원에서, 신권회에서, 또 가정에서 배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위험한 지경에서 저를 인도해 준 그 힘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본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
제일보좌 김 창 선

고린도전서 13:1-8절에 있는 말씀은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나 천학자라 할지라도 이보다 훌륭한 말씀을 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종교의 정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무시한 종교란 거짓종교에 불과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서 사랑을 빼내 버린다면 그들은 기독교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팽가리가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사랑이요, 또 하나는 성스러운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랑이란 부자지간이나,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또는 남녀 지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성스러운 사랑이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4-5장에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랑을 알 수 없으며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지전능 하십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진리는 예수가 이세상에 오심으로 하여 그 진리를 증거로 보여 주셨습니다. 참다운 복음으로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진리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가지신 능력이나 기적 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악마에게도 능력이 있으며 기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마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천수를 쳐서 이기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시온을 건설하는 것도 사랑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생활은 사랑으로 시작되며 사랑으로 계속하다가 사랑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척도도 사랑이요, 인격의 척도도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사랑이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2,000년이 지났다고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역시 사랑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길러 보지도 못한 사람이 부모님의 사랑을 절실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뜻을 주신 것은 그들을 원망고 시비하고 해를 끼치고 주신것은 아니며 오직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온 세계 인류가 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사명감을 갖고서 많은 선교사가 그들의 심령과 부를 바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고 법을 성취하라」 고 하였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이 사랑의 일꾼으로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누구나 어떤 직분을 맡기더라도 주저없이 예수의 사랑으로 맡아서 자기의 모든 능력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이를 성취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읽고 끝마칠가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외 소식

서울 스테이크 대회

스테이크 탄생 이후 2번째로 맞는 스테이크 대회가 9월 8일 9일 양일간에 걸쳐 4와드에서 개최되었다. 십이사도 보조인 데모폴 엠 버튼 장로가 감리한 이 대회에는 부인인 버튼 자매, 지역 대표인 폴 시 앤드루스 장로, 한국 선교부장단 전원, 그리고 지역 모임을 위하여 내한 한 본부 임원 3명이 손님으로 참석했다.

9월 8일 오후 6시에 열린 지도자 모임에서 버튼 장로는 스테이크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9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일반 총회에는 약 1,000여 성도가 모여 지도자의 영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서울 스테이크

아론 신권 상향회 등반 대회 갖다

서울 스테이크 아론 신권 위원회에서는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수락산으로 등반 대회를 가졌다. 이에는 아론 신권 상향회 회원 90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날 출발 시간인 9시 30분에 늦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며 도중에 낙오된 사람, 부상자가 전혀 없었다.



교회 교육 담당 책임자 맥스웰 형제 방문

교회의 교육 담당 총책으로 일하고 있는 맥스웰 형제가 지난 9월 15일 부인과 함께 내한했다. 그는 대관장단의 지시를 받아 신학 연구원의 발전 상황을 알아 보기 위하여 극동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9월 16일 저녁 합동 성찬식에서 그는 참으로 영적인 말씀을 전하였다.



뉴욕 타임스에 기사화된 가정의 밤 프로그램

지난 6월 4일 뉴욕 타임스에 발표된 교회의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원문과함께 간략하게 정리하여 실는다.

가정의 밤으로 가족의 유대를 강화함

20세기 중반의 미국 가정은 이혼, 환각제, 성병, 알코홀, 간음, 구름 섹스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인 것같이 보인다.

"결혼은 구시대의 유산이다!"라고 외치는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자녀도 귀찮다" "가족도 필요없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큰 단체가 하나 있으니, 이 단체는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몰몬)인 것이다. 그들은 "가정의 밤"이라고 불리우는 월요일 저녁

의 가족 모임을 통해 가족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나 타락해 가는 도덕을 바로 잡고 있다.

보통 7시에 시작되는 이 모임에서 물론 가족들은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며, 그들의 당면 문제를 상의하고, 계보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게임을 즐기며, 특별히 준비한 다과를 듣게 된다.

가정의 밤 프로그램은 1915년 당시 몰몬 교회의 대관장이던 조셉 에프 스머스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는 몰몬들이 일주일마다 한번씩 자녀를 불러 뒹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면 그 자녀들은 결코 나쁜 길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7년 전부터 실시되었으며, 이때 최초로 가정의 밤 교재가 출판되었는데, 이 교재는 부모가 매주 종교 공과, 건전한 오락 활

동과 다과를 준비하는데 지침이 되는 제언을 실고 있다. 1972-73년도 교재는 675,000권이 인쇄되었으며 17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오늘날 가정의 밤 프로그램은 전 주택 및 도시 개발 장관인 조오지 롬니, 저명한 골퍼인 빌리 캐스터, 아역 배우인 자니 휘터커, 매리웃 회사 사장인 제이 윌러드 매리웃, 칼라니스트인 잭 앤더슨, 전 재무장관인 데이비드 엠 게네디, 가수인 오스몬드 브라더즈의 가정에서는 물론 유타 주립 교도소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우리는 가정의 밤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라고 황금 디스크 상을 12개나 획득한 5인조 보컬팀의 리더인 만형(24) 알랜 오스몬드가 말한다.

몰몬은 또한 가족이 알코홀, 담배, 코피, 차(많은 가족이 콜라도 삼가함)

Strengthening Family Solidarity With a Home Evening Program

By JUDY KLEINERLUD

To many casual observers, the American family of the mid-20th century appears headed down the drain in a swirl of divorce, drugs, venereal disease, alcohol, adultery and group sex.

"Marriage is passé" is a rallying cry of many young people. Children are passé. Children are passé. Children are passé. The family is passé. The family is passé. The family is passé. For at least one sizable group in American society, the family is still the thing. The group is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Mormons), and their way of attacking desecration and deteriorating morality is to strengthen family circles through a Monday night get-together in the home called the "family home evening."

This is the time, usually about 7 P.M., when Mormon families pray together, sing together, talk out their problems together, study their genealogy together, play games together, and, usually, have an extra special dessert that they saved over from dinner.

Schedule Interferes

"It's particularly important in your children's younger years to lay the ground rules at family home evenings," said Harroon Kilbrow, the hard-hitting first baseman of the Minnesota Twins. "If you know those rules, you play the game of life better."

Mr. Kilbrow, a convert to his wife's Mormon faith, said that because of his travels during the baseball season his family (the Kilbrows have five children) could not always have their family home evenings on Mondays.

"It's catch-catch-catch," he said, in a telephone interview from his home in Provo, Utah. "But we always fit it in somewhere during the week," he added, noting that his favorite meetings were those that included a dessert of homemade ice cream.

The family home evening program was conceived in 1915 by Joseph F. Smith, president of the Mormon church, who said that if Mormons gathered their children around them in the home to instruct them in the gospel, their children would "not go astray."

A more organized program began nine years ago, with

the publication of the church's first Family Home Evening manual, an annual guide to parents in planning weekly religious studies, wholesome recreation activities, even suggestions for refreshments. More than 575,000 copies of the 1972-73 manual were printed, in 17 languages.

The church's emphasis on the family home evening program is led by its current president, 74-year-old Harold R. Lee, of Salt Lake City. His counsel that "the home is the basis of a righteous life and no other arrangement can take its place nor fulfill its essential function" is widely quoted in Mormon literature.

Today, family home evening programs are held for inmates of the Utah State Prison, as well as in homes of such prominent Mormons as George Romney, former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Billy Casper, the golfer; Johnny Whitaker, the child actor; J. Willard Marriott, former chairman of Marriott, Inc.; Jack Anderson, the syndicated Washington columnist; David M. Kennedy, former Secretary of the Treasury; and the Osmond Brothers, the recording stars.

We started singing through our family home evenings," said Alan Osmond, 24. The eldest and leader of the five singing brothers, who have 12 god records. "Our parents always made us get up and sing, or sing to us or tell what we had learned, and it was just easier to get up and sing."

A Sense of Stability
Speaking from the family's home in Provo, Utah, Alan said that the Osmond family always found time to do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whether getting out the best silver by candlelight, or cooking popcorn in the fireplace of the whole family going roller skating.

Mormon pride with pride to their low divorce rate according to a 1969 study made



The New York Times/Michael Ochs

at Brigham Young University in Provo, the Harvard of the Mormon educational system, only 8 of 201 temple marriages ended in divorce. (Couples married in one of the 15 Mormon temples throughout the world are considered sealed together in an "eternal marriage.")

Of 150 marriages performed outside the temple where both partners were Mormons, 21 ended in divorce. Of 23 marriages where only one partner was a Mormon, 6 ended in divorce.

According to Government statistics, there is currently one divorce for every three

new marriages in the United States. In 1972, there were 2,310,000 marriages and 783,000 divorces.

Mormons also believe that family stability is encouraged through members' abstinence from alcohol, tobacco, coffee and tea (many families also abstain from cola drinks), their encouragement of large families, and their belief that abortion is wrong.

A typical family home evening was held on a recent Monday in the David P. Forsyth home in North Caldwell, N. J. It began with the parents and their three blond children, Tammie, 15, Ted, 14, and Terence, 8, kneeling to prayer. (A fourth child, Tim, 11, is a student at a school for the deaf in Trenton.)

The Forsyths often gathered through their Book of Remembrance, a scrapbook of family goings, March anniversaries is put on remembering forefathers in Mormon homes, in accordance with the church's teachings to work up one's ancestors as a means of loving children to the past.

The meeting also included a slightly off-key duet by Ted and Terence—"Daddy Children, God is With You," written by their maternal great-grandfather—and listening to a tape recording of their paternal great-grandfather, who talked about the old days in Utah.

After the 45-minute meet-



Doony Diamond, left, leads Mormon family home evening in Provo, Utah; the Weston Edwards family, above, used visual aids in their get-together; David P. Forsyth family, right, glances at its Book of Remembrance album.

ing was over, the Forsyths gathered around a table laden with root beer, chocolate chip cookies and popcorn, and talked about what it was like to be among the 11,500 Mormons living in the New York metropolitan area. (The church's United States membership is 2,134,000, worldwide, it is over 3 million.)

"Every time I go into a conversation, someone brings up the subject of polygamy—even though they know full well I have only one wife," Mr. Forsyth, vice president of a New Jersey publication management consulting firm, said with a grin. "I tell them Mormons no longer practice plural marriage, but that my maternal grandfather was a polygamist who said that she was a wonderful woman."

College is Goal

The Forsyth children, like many Mormon youngsters, said they hoped to go to Brigham Young University, and then get married in a temple and have an "eternal marriage" as their parents do.

"I wouldn't mind dating boys who weren't of my faith," Tammie said. "But I would never marry."

A rather elaborate family home evening was held recently in the Weston Edwards home in Scarsdale, where each of the 12 children took turns presenting a lesson with a Biblical moral. The lessons



involved costumes, homemade visual aids and pop.

"One of my 12—our family evenings was the night we pretended we were making a journey to the celestial kingdom," Mrs. Edwards recalled. "We started with being born in the basement, were tempted [by food] in the kitchen, washed our way up through single marriages in the bedroom, and entered the celestial kingdom on the third floor."

Several members of the Edwards family said they had been criticized by ecumenical minded people because of the large size of their family.

The unsuspecting Mr. Edwards, who is president of a relocation management company and holds a doctorate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Harvard, said he usually avoided outside talking that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zero population growth would be far more serious for the country's world position than most people realize.

"People in school always ask me that large families are ruining the country," said Marianne Edwards, an attractive 18-year-old, who will be a freshman at Brigham Young University next fall. "I say that people in Rome were having only two children before Rome fell, an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people power."

Students at Scarsdale High School have other "strange ideas" about Mormons, Mar-

ianne said such as thinking they still practice polygamy, that, yes, women's hair dresses down to their ankles and their hair pulled back in buns.

The Edwards children gleefully recalled a recent drinking contest where a Mormon high school basketball star outdoes another player. The Mormon drank milk; his opponent drank beer.

Still, although the Edwards family prays together, travels together in their 15-passenger van, and sometimes attends church in Scarsdale every day of the week, there has been some minor strife in the family. The youngsters don't especially care for the rule that you must be 16 to date, and 14-year-old Charles was especially miffed by the so-called rule.

"My dad and I discussed it one day for 2½ hours," Charles said. "I won." So far, according to his mother, Charles has parlayed his debating triumph into having one girl—on the church.

를 삼가하는 것도 가정의 안정에 기여 한다고 믿는다.

물론은 또한 이혼율이 낮은 것을 자랑하고 있다. 볼몬의 하바드라고 일컬어지는 브리검 영 대학의 1969년 조사에 의하면 신전 결혼을 한 205쌍 중에서 이혼한 가정은 6쌍뿐이었다. (전 세계에 있는 15개의 신전 안에서 결혼한 부부는 영원한 결혼으로 함께 인봉된다고 믿는다.) 부부가 모두 볼몬인 경우 신전 밖에서 행해진 150쌍의 결혼 중 21쌍이 이혼을 했다. 부부 중 한쪽만 볼몬인 경우에는 25쌍 중에서 6쌍이 이혼으로 끝났다.

미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의 이혼율은 현재 새로 결혼한 세 가정에서 한 가정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2년에는 2,210,000 쌍이 이혼했다.

뉴저지주 노스 칼드웰에 사는 데이

비드 피 포시스씨의 가정에서 갖인 전형적인 가정의 밤을 살펴 보기로 하자. 모임은 부모와 금발의 세 자녀(15세의 타마라, 14세인 토드, 9세인 테렌스)가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으로 시작된다. 가족은 가족 계보를 스크랩한 기억의 책을 넘겨 본다. 자녀의 마음을 선조에게 돌리게 하는 한 방법으로 선조를 찾도록 하라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볼몬 가정에서는 선조를 기억할 것을 강조한다.

토드와 테렌스는 그들의 외증조부가 작곡한 "귀여운 자녀들아"를 부르고, 유타의 옛날에 관해 말한 증조부의 녹음을 듣는다.

45분간의 모임이 끝나면 가족이 테이블 주위에 둘러 앉아 쿠키, 팝콘, 초콜릿칩을 즐기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눈다.

